

2014 혁신학교 토론회

혁신학교와 공교육패러다임 변화 토론회

- 일 시 : 2014년 7월 23일(수) 15:00~18:00
- 장 소 : 서울시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강당
- 주 최 : 전교조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형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주 관 : 전교조

일 정

	시간	내 용
접수	14:30~15:00	접수 및 자료집 배부
1 부	15:00~15:15	<p>■ 사 회 : 이영주(전교조 수석부위원장)</p> <p>■ 인사말 : 김정훈(전교조위원장)</p> <p>■ 축 사</p>
2 부 발제/토론	15:15~18:00	<p>■ 사 회 : 이형빈(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연구원, 경희대 강사)</p> <p>■ 발제</p> <p>■ 혁신학교 - 1기 평가와 2기 과제</p> <p>- 손동빈(전교조 학교혁신특위집행위원장)</p> <p>■ 일반고 위기와 혁신고등학교</p> <p>- 백병부(경기교육연구원 연구위원)</p> <p>■ 혁신학교 운동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가능성</p> <p>- 천보선(참교육연구소장)</p> <p>■ 지정토론</p> <p>강민정(북서울중학교 교사)</p> <p>박인숙(서울형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p> <p>신동하(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p> <p>박이선(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회장)</p> <p>박현숙(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표)</p> <p>■ 자유토론</p>

목 차

■ 인사말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7
---------------------------	---

■ 발제

[발제1] 혁신학교 - 1기 평가와 2기 과제

-손동빈(전교조 학교혁신특위집행위원장).....	9
----------------------------	---

[발제2] 일반고 위기와 혁신고등학교

- 백병부(경기교육연구원 연구위원)	45
---------------------------	----

[발제3] 혁신학교 운동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가능성

- 천보선(참교육연구소장).....	57
---------------------	----

■ 지정토론

토론 1 : 강민정(북서울중학교 교사)	79
토론 2 : 박인숙(서울형혁신학교학부모네트크)	83
토론 3 : 신동하(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	87
토론 4 : 박이선(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회장)	95
토론 5 : 박현숙(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표)	101

■ 자유토론

세월호 참사 앞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4월 16일 이후
우리는 모든 가치를 상실한 한국 자본주의의 맨얼굴을 보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일들 속에서 보아온 실체였지만,
이토록 아프게 상처를 새기며 직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내야만 하는 일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가슴 저민 죽음과 고통 앞에서
다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면 우리 사회는
아무 것도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다시 세우는 것은
교육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교육 시대의 교육혁명!
가치공유의 연대, 가치공유의 교육-생명·노동·인권·평화,
학교자치에 기반한 혁신학교-학교혁신의 새로운 길입니다.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한 교육체제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들길이 물길이 터졌습니다.
묻고 또 물으며 피어나고 헤엄치며
아픔을 새긴 생명의 교실을 향해!

2014년 7월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김 정 훈 올림

혁신학교 - 1기 평가와 2기 과제

손동빈(전교조 학교혁신특위 집행위원장)

I. 들어가는 말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특히 2014 6.4 지방선거에서 혁신학교를 공약으로 내건 교육감들이 13개 시도교육청에서 당선이후 관심은 대중적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각종 언론에서 혁신학교를 다루는 빈도가 더 많아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혁신학교를 공약으로 내건 13개 시도교육청이 혁신학교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나라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혁신학교정책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해결과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할 기회를 갖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혁신학교의 구체적 성과가 없다보니, 혁신학교가 국민들이 학교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보니, 혁신학교의 확대는 형평성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등의 혁신학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극복해야 하는 것도 혁신학교 추진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여기에서는 혁신학교가 우리나라 공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주요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혁신학교의 지난 1기를 평가하고 2기의 과제를 정리한다. 이것은 혁신학교정책의 배경이기도 하고 그 지위와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혁신학교 1기는 혁신학교 정책도입부터 2014년까지를 의미하며, 2기란 13개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미 혁신학교 정책을 시작한 교육청의 경우 이 시기 구분이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정책을 처음 시작하는 교육청의 경우, 도입시기라고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역사에서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삼

는다면 이런 시기구분도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교육역사에서 갖는 의미라는 것은, 비록 혁신학교 정책이 시도교육청의 정책이기는 하지만, 혁신학교를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나라 교육을 바꾸기 위한 부단한 교육운동의 역사적 실천적 경험의 연속성에서 이해한다는 것을 말한다.

Ⅱ. 혁신학교의 의미와 추진 배경

1. 혁신학교의 의미

혁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근거를 두고, 교육감이 지정·운영하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학교인 자율학교의 한 유형이지만, 다른 맥락에서 도입·운영되고 있다. 이 학교는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자율·민주적 학교 운영, 공동체 지향, 학생·학부모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차별화되어 있으며, 2009년 4월 경기도교육감 보궐 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된 후 13개를 지정·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혁신학교는 2010년부터 강원, 경기, 광주, 서울, 전남, 전북교육청으로 확대되어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그 명칭은 서로 다르다. 강원은 행복더하기 학교, 경기도는 혁신학교, 광주는 빛고를 혁신학교, 서울은 서울형 혁신학교, 전남은 무지개 학교, 전북은 혁신학교라고 불리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형 혁신학교를 “서울 지역 학교 특성과 학생·교원·학부모·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학교”로, 전북교육청은 혁신학교를 “공교육 내실화의 성공 모델을 창출하여 이를 확산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라북도교육감이 지정·운영하는 학교”로, 전남교육청은 무지개 학교를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을 실현해 나가는 미래지향적 혁신학교”로,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은 혁신학교를 “민주적 자치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의한 창의지성교육을 실현하는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임. 혁신학교는 우리 공교육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개혁적 교육모델을 통해 해결해가려는 혁신적 교육운동이자 사회운동”이라고 개념적 정의를 하고 있다.

이들 내용을 종합해보면 혁신학교는 “모두를 위한 질 높은 학교 교육의 모델로서 일반학교에 영향을 미쳐 공교육 혁신과 내실화를 위한 꾀하려는 학교”로 정의내릴 수 있다.

2. 혁신학교 추진 배경과 혁신학교의 역할

혁신학교는 한국의 교육현실을 배경으로 추진되는 학교개혁 정책이다. “한국의 교육은 1995년 5·31교육개혁 이후 시장주의에 기초한 경쟁 중심의 교육정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교육은 서열화와 차별화, 획일화의 길을 걷게 되었고,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쟁주의, 차별주의, 서열주의 정책은 그 정도가 극에 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원평가, 교원성과급, 국가수준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정보 공시제, 학교 다양화 정책, 학교 자율화 조치 등이 그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학교교육이 지식위주 교육과 대학입시에 매몰된 채 과거의 산업주의 패러다임에서 한 발 짝도 내딛지 못하는 한계이고, 또 하나는 그럼으로써 우리 교육이 미래사회의 요구와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입니다. 이 와중에 아이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한 해 200여 명의 학생들이 자살 행렬에 뛰어들고 있고, 매년 60,000여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현재가 이렇게 불행하고 절망적이라면, 아이들의 미래도 국가의 미래도 없지 않겠습니까? 혁신학교는 현행 학교 체제의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실험적 성격을 지닙니다.”(김승환, “혁신학교와 공교육 혁신”, 2013)

이처럼 혁신학교는 난관에 처해 있는 공교육의 혁신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 때 ‘혁신’은 공교육의 성과를 인정하면서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며, 공교육 ‘정상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공교육의 내용의 변화와 발전이라는 전향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이광호 외, 2012). 혁신학교는 새로운 학교유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교육 내부의 변화에 집중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개혁정책과 확연히 구별되며, 자신의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드는데 목적을 두기보다 인근 학교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학교로서, 혁신학교는 지역의 거점학교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네트워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혁신학교 간 연대는 물론 일반학교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김성천, 2012). 이런 점에서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파일럿 스쿨(pilot school)이면서 동시에 일반학교의 혁신에도 기여하기 위한 허브스쿨(hub school)이라고 할 수 있다.

Ⅲ. 혁신학교- 1기 평가

혁신학교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는 논쟁거리이다. 혁신학교의 의미와 지위 및 역할을 통해 볼 때, 그것은 지금까지 진행된 학교 평가 기준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학교 평가는 교육경영,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육성과 및 만족도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구체적 항목은 주로 교육부나 교육청의 정책사업을 반영한다. 2013년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2013년 서울형 혁신학교 평가 연구사업 결과 보고서”의 평가영역과 내용도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른 것이다.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 평가연구결과가 “평가의 목적과 평가 영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교육시선, 오늘, 2013 준비호 2)는 지적은 이 연구의 치명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혁신학교 정책의 취지나 내용영역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혁신학교 정책관련자 및 일반 시민들은 연구 결과에 동의할 수 없었다.

혁신학교를 평가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긴요하다. 혁신학교가 확대되고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하고 그것을 기초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 자체가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아직 혁신학교 평가 기준이 합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혁신학교 제1기를 평가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가능하리라 본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혁신학교의 운영현황을 살피고, 혁신학교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혁신학교 운영 현황을 통한 평가

제1기 혁신학교는 2009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2011년 6개시도교육청이 추진한 정책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기 전까지의 혁신학교를 말한다. 이 시기 혁신학교는 서울의 경우처럼 정치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교육청별 추진 목표 측면에서 일정정도 양적 확대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	강원	경기	광주	서울	전남	전북	계
혁신학교 명칭	강원 행복+ 학교	혁신학교	빛고을 혁신학교	서울형 혁신학교	무지개 학교	전북 혁신학교	
최초 추진 연도	2011	2009	2011	2011	2011	2011	
혁신학교 수 (2014.3월 기준)	41	290 (유치원포함)	26 (특수학교포함)	67	65	101 (유치원포함)	590
전체 학교수 (2012년 기준)	682	2,200	299	1,282	830	751	6,044
혁신학교 비율(%)	6.01	12.82	8.7	5.22	7.8	13.45	9.6
2014년 목표 학교 수	41	200	22	300	60	100	723
2014년 혁신학교비율(%)	6.0	9.1	7.4	23.4	7.2	13.3	11.07

<2014년 3.1일 현재 혁신학교 지정 현황 I >

위 표에서 보듯이 혁신학교의 양적 확대는 서울시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모두 목표 학교 수를 달성하였다. 전체적으로는 2014년 목표학교 수 723개교, 혁신학교 목표비율 11.3%에 비해, 실제 학교 수 590개교, 혁신학교 비율 9.6%로 목표에 미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을 제외한 혁신학교 목표 비율이 8.9%로서 실제 달성 비율은 10.8%에 달함으로써 이 경우 혁신학교는 목표치를 양적으로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목표 달성 상황은 혁신학교 1기 초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 지지를 획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혁신학교는 주로 공모형을 통해 지정되는 것으로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혁신학교의 양적 확대 목표 달성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		강원	경기	광주	서울	전남	전북	계	
혁신학교 명칭		강원 행복+ 학교	혁신학교	빛고을 혁신학교	서울형 혁신학교	무지개 학교	전북 혁신학교		
학교 급별	유치원		8				1	9	1.5
	초등학교	22	142	10	36	44	67	321	54.4
	중학교	13	107	10	21	18	28	197	33.4
	고등학교	6	33	3	10	3	5	60	10.2
	특수학교			3				3	0.5
	계	41	290	26	67	65	101	590	100

<2014년 3.1일 현재 혁신학교 지정 현황 II >

한편 위 표에서 보듯이, 혁신학교 지정은 초기에 초중고를 중심으로 지정되

었으나, 전북과 경기도의 경우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등 종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광주시의 경우와 같이 특수학교도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등 혁신학교의 대상이 급별 확대를 넘어서 교육대상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혁신학교 연구 결과를 통한 평가

혁신학교가 운영되면서 혁신학교에 대한 연구도 많아지고 있다. 각 대학에서는 학문적 관점에서 석사 박사학위논문을 비롯한 많은 연구저작물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 연구 저작물 외에도 혁신학교 정책을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서도 혁신학교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내고 있으며, 서울시 의회,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도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서는 서울시 의회, 한국교육개발원, 각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연구 성과물 중 비교적 최근의 연구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혁신학교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1) 강원

: 행복 더하기 학교 성과 분석(2013.11)- 강원도교육연구원(김희규 외)

(가) 연구 개요

- 2011년부터 강원행복+학교로 선정된 1, 2년차 41개교(초 22개교, 중 13개교, 고 6개교)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있으면서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이 유사한 일반학교 41개교(초 22개교, 중 13개교, 고6개교)의 교사와 학생
- 설문조사는 2013년 9월 24일(화)부터 2013년 10월 7일(월) 사이에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교사316명, 학생1416명 참여)

(나) 연구 결과

- 강원행복+학교에 재직하고 교사는 일반학교 교사에 비해 5개 영역(교육과정 및 수업개선, 생활지도, 학교운영체제, 협력적 학교문화, 교사집단 효능감)에서 모두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지도 영역을 제외한 4개영역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연령대별로 강원행복+학교와 일반학교를 나누어서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강원행복+ 학교 소속 교사들이 일반학교 교사에 비해 각 척도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음. 그러나 20대의 경우 교육과정 및 수업

개선 영역을 제외한 4개영역에서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평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교직경력별로 강원행복+학교와 일반학교를 나누어서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강원행복+학교 소속 교사들이 일반학교 교사에 비해 각 척도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직경력이 높을수록 평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근무연수별로 강원행복+학교와 일반학교를 나누어서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강원행복+학교 소속 교사들이 일반학교 교사에 비해 각 척도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 연수수가 많을수록 평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음.
- 직위별로 강원행복+학교와 일반학교를 나누어서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결과, 강원행복+학교 소속 교사들이 일반학교 교사에 비해 각 척도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수석교사 → 보직교사 → 교사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남.
- 학생의 경우, 5개 영역(수업참여, 학생자치활동, 교사와의 관계형성, 학생권리 존중, 자아 효능감)에서 강원행복+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모두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 학년별 비교 분석에 의하면, 강원행복+학교 초등학교 5.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은 수업참여, 학생자치활동, 교사와의 관계형성, 학생권리 존중, 자아 효능감 영역에서는 일반학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은 수업참여와 자아 효능감 영역에서 다소 높게 낮지만, 학생자치활동, 교사와의 관계형성, 학생권리 존중 영역에서는 다소 낮은 점수를 보임.
- 경력과 근무연수, 연령대가 높을수록 척도별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난 점은 강원행복+학교 구성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음. 교사들의 경우, 연령대별, 교직경력별, 본교 재직연수별, 직위별로, 학생들의 경우, 성별, 학년별로 살펴보았을 때도 강원행복+학교가 일반학교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연구결과는 강원행복+학교의 특수적 성격보다는 보편적인 성격을 오히려 잘 드러내고 있음. 즉, 소수에 의한 혁신이 아닌 모두를 위한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강원행복+학교의 학년별 평균 점수는 초>중>고 순으로, 이는 강원행복+학교의 방향과 비전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 어느 정도 자리잡아

가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아직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2) 경기

■ 혁신학교 성과분석 및 확산(2012)-경기도교육연구원정책개발팀(김성천 외)

(가) 연구개요

- 2012. 11. 21~12.4 혁신학교 149개교, 일반학교 151개교의 교사 학생 온라인 설문조사(교사 5,953명, 초중고 학생 14,700명 참여)

(나) 연구결과

- 혁신학교 교사가 일반학교 교사에 비해 5개 영역(수업혁신, 생활지도 효능감, 교육과정혁신, 학교공동체감, 교사집단 효능감)에서 모두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지도 효능감 영역을 제외한 4개 영역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학교급별로 5개 영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에 비해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공동체감을 제외하고는 4개 영역에서 일반학교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임
- 학생의 경우 5개 영역(수업참여, 학생자치, 교사관계형성, 학생인권존중, 자기효능감)에서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모두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혁신학교에 대한 세간의 오해(특정교원단체학교, 하위권학생들을 위한 학교, 젊은 교사들 중심의 학교)와는 정반대로 교총 소속 회원일수록, 상위권 학생일수록, 경력과 연령대가 높을수록 척도별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남

■ 경기도 혁신학교 성과 분석(2013.12)-경기도교육연구원(백병부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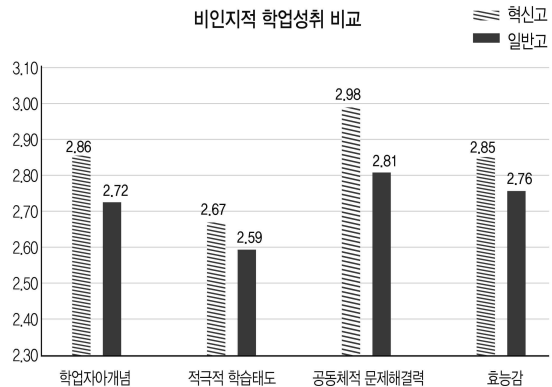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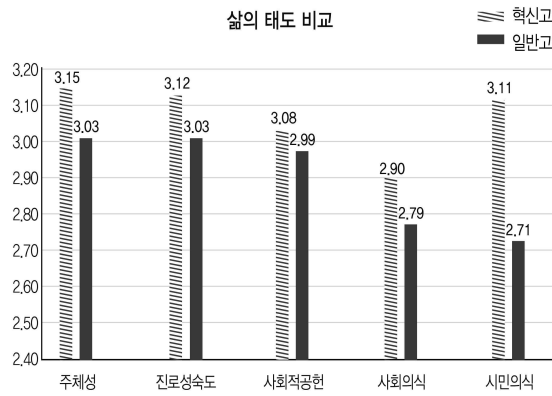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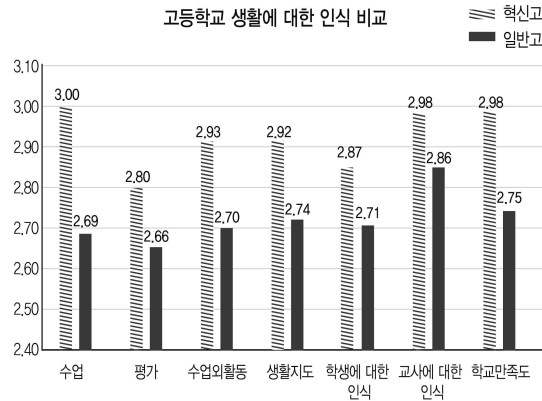
(가) 연구개요

- 혁신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것이 학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3년 이상 혁신고등학교로 지정된 11개 학교와 이들 인근의 일반고등학교 11개교 학생 대상
- 2012년 11. 27 ~ 12.10 온라인 설문조사(혁신고 11, 일반고 10개교 1학년 1,349명 응답)

(나) 연구결과

- 학교의 전반적인 혁신 정도(수업, 평가, 수업외활동, 생활지도, 교사에 대한 인식, 학생에 대한 인식, 학교만족도), 삶의 태도(주체성, 진로성

속도, 사회공헌의식, 사회의식, 시민의식), 비인지적 학업성취(학업자아 개념, 학습태도, 공동체적 문제해결력, 교과효능감)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고 재학생들이 일반고 재학생보다 높은 값을 보이고 있음



■ 경기도 혁신학교중장기 발전방안연구(2014.7)-경기도교육연구원(백병부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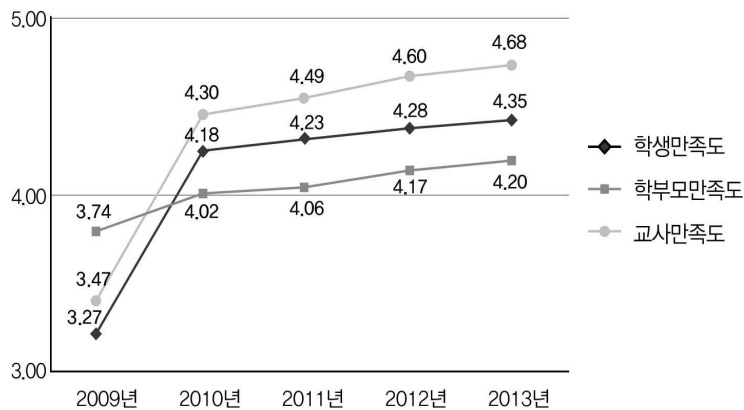
(가) 연구개요

- 혁신학교의 교육개혁적 의미, 혁신학교의 도입 경과, 현황, 성과 정리,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분석 및 혁신학교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제언
- 문헌연구, 온라인 설문조사, FGI 및 전문가협의회 등의 연구 방법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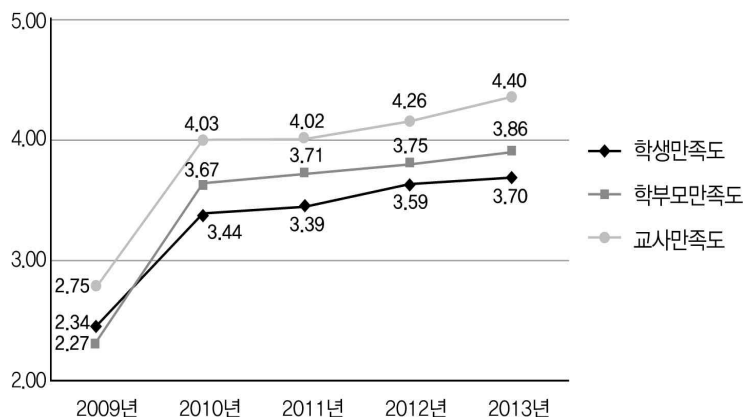
(나) 연구결과

- 학생, 교사, 학부모의 교육만족도가 제고

혁신학교 교육만족도(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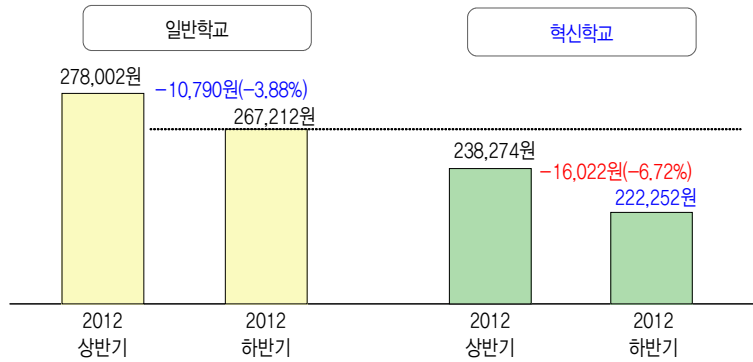


혁신학교 교육만족도(중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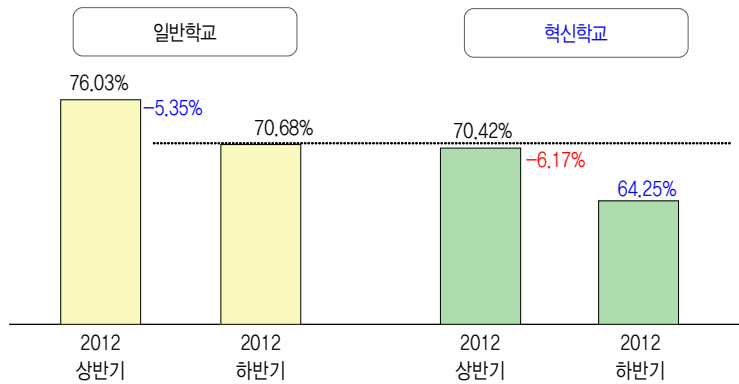


○ 사교육비 경감

혁신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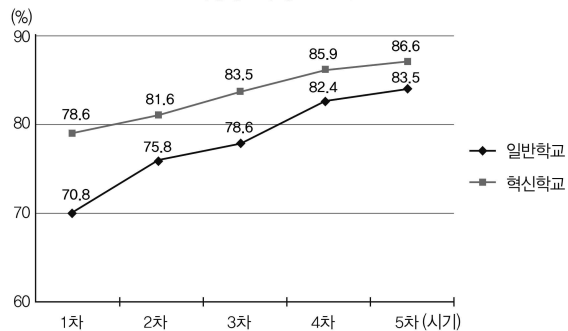
혁신학교 사교육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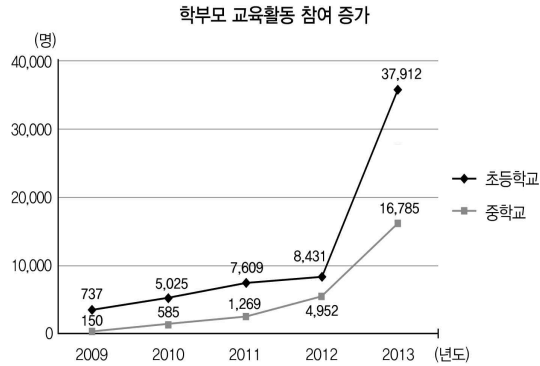


○ 기초학력미달비율감소, 비인지적 성취 증가

○ 교사행정업무경감 만족도 상승,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 증가

교사행정업무경감 만족도





(3) 광주

: 2013 빛고을혁신학교 운영 만족도(2014.)-광주광역시교육청

(가) 연구개요

-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하는 빛고을혁신학교 만족도임
- 혁신학교 18개교를 대상으로 한 학생, 학부모, 교원, 직원들 만족도

(나) 연구결과

- 혁신학교 운영 만족도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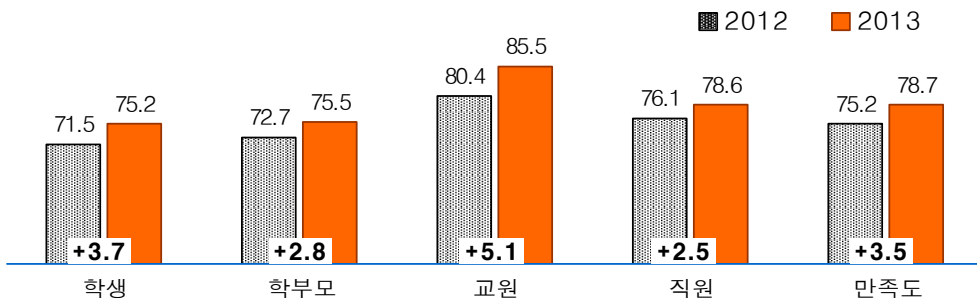
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	직원	만족도
초등학교	82.0	80.5	89.0	79.8	82.8
중학교	67.3	70.1	84.3	77.6	74.8
고등학교	71.7	71.6	73.6	76.8	73.4
평점(18교)	75.2	75.5	85.5	78.6	78.7

☞ 혁신학교 운영 만족도는 종합 평균 78.7%. 2012년 만족도 75.2%에 비해 3.5%가 높아짐

☞ 구성원별로는 교원(85.5%)이 가장 높고, 직원(78.6%), 학부모 (75.5%), 학생(75.2%) 순임

☞ 학교급별은 초등학교가 82.8%, 중학교 74.8%, 고등학교 73.4%임.

- 기간별 혁신학교 운영 만족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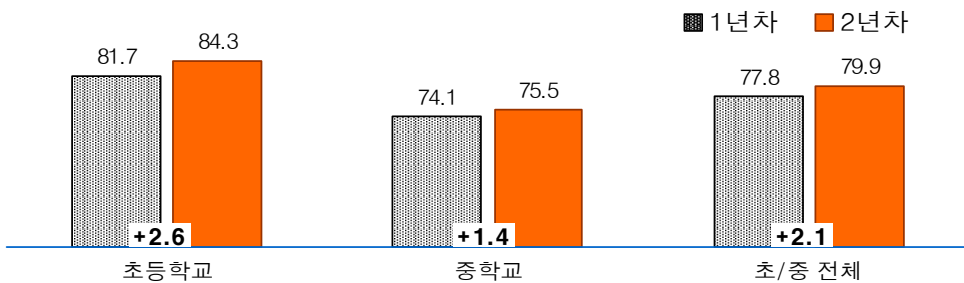


학교	연도	학생	학부모	교원	직원	만족도
초등학교	2012	81.4	79.0	83.7	75.0	79.8
	2013	82.0	80.5	89.0	79.8	82.8
중학교	2012	64.0	66.7	79.5	76.8	71.8
	2013	67.3	70.1	84.3	77.6	74.8
고등학교	2012	67.0	72.0	75.8	76.7	72.9
	2013	71.7	71.6	73.6	76.8	73.4
평점	2012	71.5	72.7	80.4	76.1	75.2
	2013	75.2	75.5	85.5	78.6	78.7
	증감	+3.7	+2.8	+5.1	+2.5	+3.5

☞ 교원의 만족도 상승폭이 가장 큼.

☞ 학교급별로 초등학교(+3.0%), 중학교(+3.0%)가 고등학교(+0.5%)보다 더 높아짐.

○ 선정 차수별 운영 만족도 비교



☞ 선정 차수별로 운영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2012년에 선정된 초·중학교의 만족도가 올해 2013년 선정학교 보다 2.1%가 높게 나타남.
혁신학교 운영기간에 따라 성과가 크다고 할 수 있음

(4) 서울

: 서울교육발전을 위한 학교혁신 방안 연구 : 혁신학교 운영성과를 중심으로(2013.9)-(사)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이윤미 외)

(가) 연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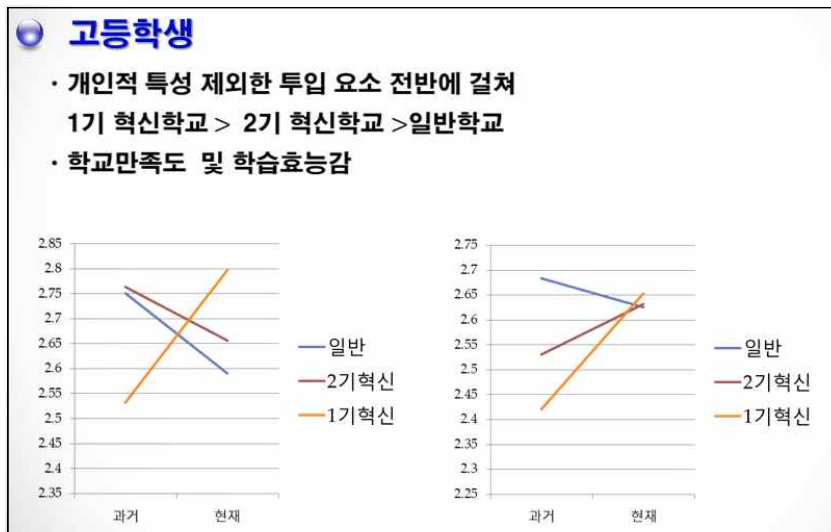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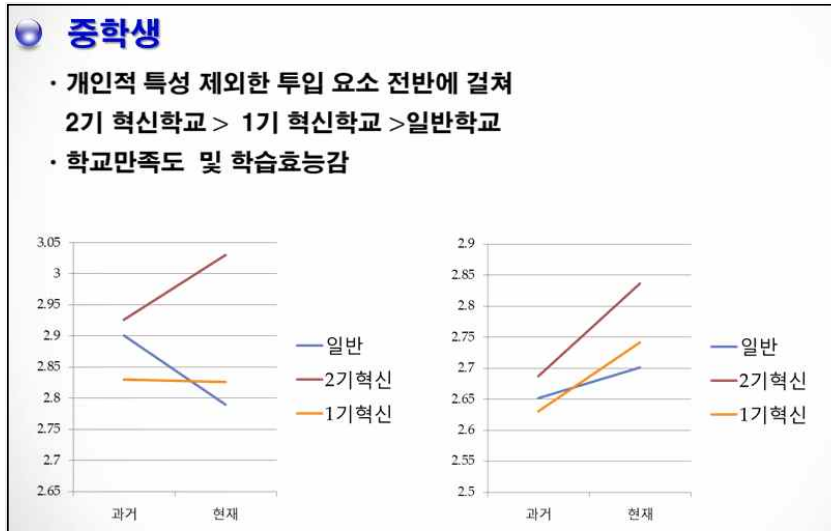
- 서울형 혁신학교의 현황 및 성과 분석
- 61개 혁신학교(2013년 신규 지정 혁신학교 제외) 및 혁신학교와 유사한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동수의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초6, 중3, 고3 학생 및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 5개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한 액션리서치 수행 및 분석

(나) 연구결과

- 전체적으로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구성원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혁신학교에 대한 학교만족도, 교육혁신 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중등학교와 달리 초등학교에서는 일반학교와 혁신학교간의 차이 뿐 아니라 1기와 2기 혁신학교 간의 연차 효과도 유의하게 드러나고 있음
- 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습효능감이 혁신학교들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혁신학교 지정여부나 연차에 관계없이 학교혁신이 학생과 교사에게 긍정적 효과를 미침
- 혁신학교에서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전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학교에서 시도되지 않은 다양한 수업형태가 학교차원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실천되고 있음

- 혁신학교는 교사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수업연구활동 등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활협약 등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학교교육의 주체가 되고 있음
- 학력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추구함
- 수업과 생활지도, 학교운영 민주화 등이 각각 개별화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중시 됨
- 학교 의존도가 높은 학교들에서 높은 교육혁신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교사 및 학생의 소통과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공교육혁신을 위해서는 학교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혁신학교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

(5) 전남

: 무지개학교 운영성과 평가 연구(2013.) - 함께여는교육연구소(성기선 외)

(가) 연구개요

- 2013년 12월, 전남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무지개학교에 대한 선입견이 설문조사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남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 명의로 진행
- 온라인 설문조사는 1,245명 교사 참여. 전체 응답자 중 무지개학교 교사 432명, 일반학교 교사813명

(나) 연구결과

- 모든 항목에서 무지개학교 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는 일반학교 교사들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

교육과정 중심 교육지원체제 구축 정도

변수	학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교육과정 중심 교	무지개학교	4.30	0.90	432
육지원체제 구축	일반학교	3.64	1.06	813
정도	합계	3.87	1.05	1245

민주적 의사결정과 협력 문화 정착

변수	학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민주적 의사결정과	무지개학교	4.21	0.97	432
협력문화 정착	일반학교	3.71	1.07	813
	합계	3.89	1.06	1245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교사·학부모 의견 반영

변수	학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교육과정	무지개학교	4.28	0.89	432
편성·운영에 교사·	일반학교	3.84	0.98	813
학부모 의견 반영	합계	3.99	0.97	1245

교육과정이 학생의 미래형 인재 성장에 대해 기여하는 정도

변수	학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교육과정이 학생의	무지개학교	4.21	0.92	432
미래형 인재 성장에	일반학교	3.77	0.94	813
대해 기여하는 정도	합계	3.92	0.95	1245

학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 실현

변수	학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교육과정	무지개학교	4.25	0.93	432
다양화·특성화	일반학교	3.78	0.97	813
실현	합계	3.94	0.98	1245

수업공개와 연구회 활성화 정도

변수	학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수업공개, 연구회	무지개학교	4.44	0.82	432
활성화 정도	일반학교	4.10	0.91	813
	합계	4.22	0.89	1245

교사 연구모임 활성화 정도

변수	학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교사 연구모임	무지개학교	4.23	0.91	432
활성화 정도	일반학교	3.48	1.05	813
	합계	3.74	1.06	1245

평가 방법의 개선 정도

변수	학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가 방법의	무지개학교	4.01	0.96	432
개선 정도	일반학교	3.63	0.94	813
	합계	3.76	0.97	1245

교사 전문성 향상 정도

변수	학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교사 전문성	무지개학교	4.18	0.89	432
향상 정도	일반학교	3.80	0.95	813
	합계	3.93	0.95	1245

현재 학교 계속 근무 의지

변수	학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현재 학교 계속 근무 의지	무지개학교	4.11	1.03	432
	일반학교	3.71	1.16	813
	합계	3.85	1.13	1245

학부모·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 정도

변수	학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학부모·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 정도	무지개학교	4.05	0.93	432
	일반학교	3.78	0.97	813
	합계	3.88	0.96	1245

학생들 사이의 배려와 협력 학습문화 정도

변수	학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학생들 사이의 배려와 협력적 학습문화 정도	무지개학교	4.07	0.90	432
	일반학교	3.73	0.97	813
	합계	3.85	0.96	1245

학생 자치 활동 정도

변수	학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학생자치 활동 정도	무지개학교	4.20	0.93	432
	일반학교	3.71	0.98	813
	합계	3.88	0.99	1245

학습부진학생 배려 프로그램 운영 정도

변수	학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학습부진학생 배려 프로그램 운영 정도	무지개학교	4.00	0.98	432
	일반학교	3.76	0.97	813
	합계	3.84	0.98	1245

- 무지개학교의 성공적 운영 여부에 대해서 무지개학교 근무교사와 일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큼. 무지개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은 무지개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높게 평가(4.09점)하는 반면에 일반학교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3.47점)

변수	학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무지개학교의 성공적 운영 여부에 대한 의견	무지개학교	4.09	0.96	432
	일반학교	3.47	0.98	813
	합계	3.68	1.02	1245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들은 3.75, 중학교 교사들은 3.67, 고등학교 교사들은 3.49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교사들은 무지개학교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비율이 낮아짐

변수	학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무지개학교의 성공적 운영 여부에 대한 의견	초등	3.75	1.06	718
	중학교	3.67	0.96	333
	고등학교	3.49	0.89	194
	합계	3.68	1.02	1245

(6) 전복

: 2013 혁신학교의 학교효과성 분석(2013.12)-전북교육정책연구소(정태식 외)

(가) 연구개요

- 미래형 학교효과성 측정도구(개정판)를 활용하여 혁신학교의 학교효과성 분석
- 혁신학교 83교와 일반학교 29교의 교사 1,835명, 학생 4,061명, 학부모 3,602명이 응답한 설문 분석 결과와 혁신학교 6교, 일반학교 2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담

(나) 연구결과

- 초.중등 모두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대부분의 영역과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학교효과성이 높게 나타남.
- 농산어촌지역과 도시지역 모두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많은 영역과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학교효과성이 높게 나타남
-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와 상관없이 교원,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학교효과성이 높게 나타남
-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교사역량강화’ > 민주적 협의 문화 > 수업공동체 순으로 나타남
- 교장.교감의 경우 혁신학교 일수록, 혁신학교에 근무한 경험이 있을수록 대부분의 영역과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학교효과성을 높게 평가함
-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모두 많은 영역과 변인에서 학급당 인원이 적을수록 학교효과성이 높게 나타남. 특히, 혁신학교에서 학급당 인원이 적을수록 학교효과성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모두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적 협의 문화> 미래핵심역량> 수업지원체제 구축>수업공동체 순으로 나타남

(7) 전국단위연구

: 자율학교성과분석연구: 혁신학교모형을 중심으로(2013.2)- 한국교육개발원(나민주 외)

(가) 연구개요

○ 관련문헌 및 자료, 교육청 및 학교별 문서 및 사례분석

○ 교원 및 학부모 대상 면담 조사 및 설문조사

☞ 혁신학교 운영기간이 2개년 이상(2012년 12월 현재)인 157개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원 3,140명, 학부모 6,390명, 총9,53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개발원(KEDI) 웹사이트 방식으로 2012년 12월 12일부터12월 20일까지 설문조사 실시. 실제 응답자는 교원 758명(응답률21.1%), 학부모 531명(응답률8.3%)으로 총 1,289명(응답률13.5%)임

(나) 연구결과

영역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시설 및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시설 및 환경 개선 • 학교의 재정 상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학교 지나친 입학 경쟁으로 인해 과밀학급 발생 • 학교간 형평성 저해 및 편중 투자
교사 전문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초빙제 활용하여 교사 유치 • 교사의 직무 및 업무 경감 • 교원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연수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의 교사초빙권 남용 • 특정 교원단체 가입교사 편중
학교 운영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 민주적 의사결정 분위기 확산 •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 리더십이 부족한 학교장의 횡행 • 학교내 구성원간 갈등 증가 • 학부모의 참여 기회 제한
협력적 학교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간의 협력적 분위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단체 소속 교원과 비소속 교원간의 갈등 야기
교육 과정 및 교수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가능 • 배움중심의 다양한 교육 방법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부모 불만 • 학교급간 연계성 부족으로 학생들 혼란 • 대학입시와 괴리된 수업방식과 평가방식으로 불안 증가 • 기초학력부진, 위기학생에 대한 돌봄 부족
학업 성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지역 초등 혁신학교의 기초학력미달 비율 감소 • 경기도 2년 이상 운영된 혁신학교에서 2011 ~2012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취도 저하 및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높음 • 기초학력 학습 부족으로 사교육 의존도 일부 증가
학교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학부모, 학생의 만족도 제고 • 대외적 이미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단계 만족도 상대적 저조 • 학생 만족도 상대적 저조
교육 공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학교 성과에 대한 일반학교로의 일반화 작업 추진 • 농산어촌지역 혁신학교의 귀농귀촌 흐름 형성 •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학교 재정 지원 편중 문제로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야기 • 지정 해제 혹은 재정지원 중단 이후 지속성에 대한 우려
교육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문화의 변화 • 학교구성원간 협력적 관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방식의 혁신에서 오는 혼란 • 교원과 학부모 인식부족으로 인한 갈등 • 교육부와 교육감의 참여한 갈등 야기
성과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학교에 대한 체계적 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학교 확산과 관련한 주변 집값 상승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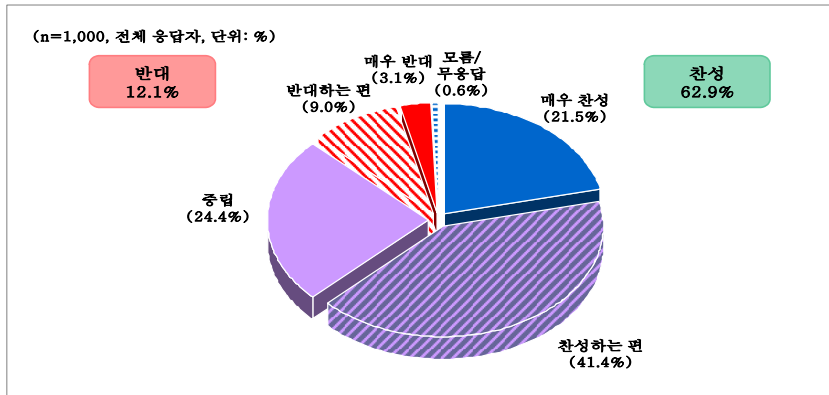
- 혁신학교의 학교운영과 정책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혁신학교의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구성원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혁신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또한 혁신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수준 미달 비율이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 높다는 점, 특정 교원단체의 거점학교화 되는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음

3. 연구 성과 논의 및 종합

1기 혁신학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 속에서 출발하였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를 기조로 자사고를 필두로 한 고등학교서열화와 입시경쟁 교육 강화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일제고사, 교원 평가 등 외적 자극과 통제 그리고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기본 관점을 유지 강화시키고 있다. 이런 제한적 상황에서 공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혁신학교가 시작되었다.

혁신학교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다양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었고, 이와 관련된 최근의 사례들을 요약 제시해 보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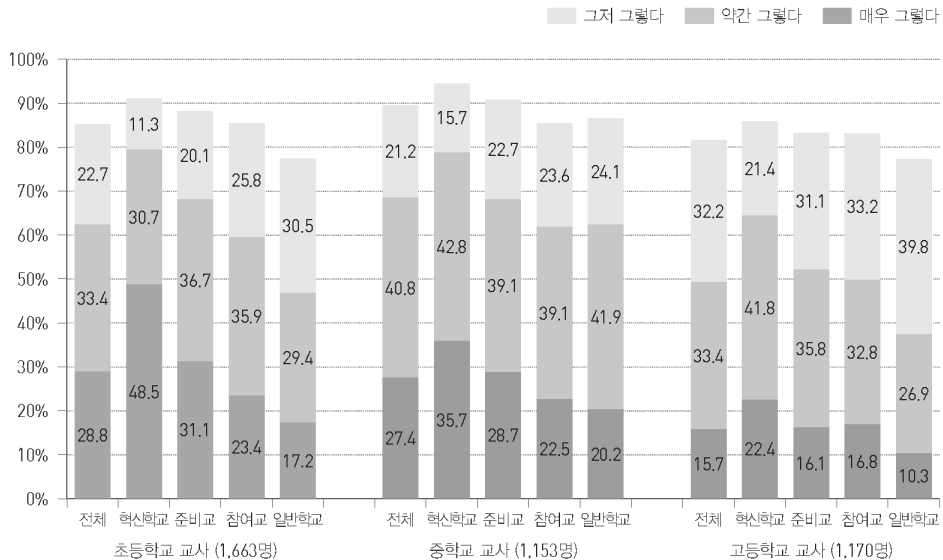
첫째, 혁신학교는 학교 내외의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공교육 신뢰회복의 대중적 기반을 획득하고 있다. 위의 각종 연구는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학생, 학부모, 혁신학교 교사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각 교육청에서 연구한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전국단위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 교육청의 연구는 교총 소속 회원일수록, 상위권 학생일수록, 경력과 연령대가 높을수록 혁신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경우, 연령대별, 교직경력별, 본교 재직연수별, 직위별로, 학생들의 경우, 성별, 학년별로 살펴보았을 때도 강원행복+학교가 일반학교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혁신학교가 소수에 의한 혁신학교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학교 대한 지지는 최근의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3월 (주)리서치 플러스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전화면접설문조사, 95%신뢰수준 하에서 $\pm 3.10\%$ p)한 “교육의제 관련 전국민여론조사”결과



에 따르면, 혁신학교 확대에 대해 찬성이 62.9%(매우 찬성 21.5%, 찬성하는 편 41.4%)로 반대 12.1%(매우 반대 3.1%, 반대하는 편 9.0%)에 비해 매우 높게 조사되었으며, 중립 응답은 24.4%였다. 혁신학교정책추진을 공약으로 내건 13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의 당선은 이러한 대중적 지지를 확인시켜준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서 학교 효과성을 보이면서 학교 혁신의 내용을 담보하는 파일럿스쿨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허브스쿨로서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 혁신학교 연구에 따르면, 혁신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의 혁신에 대한 인식이 일반학교에 비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남 무지개 학교의 경우에도 일반학교에 비해 민주적 의사결정과 협력문화 정착, 교육과정 중심 교육지원체제 구축, 교육과정 다양화 특성화 실현, 평가 방법의 개선, 학생 자치 활동 정도, 등 모든 분야에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전북 혁신학교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농산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초·중등 모두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대부분의 영역과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학교효과성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백병부, 2014)에서도 이런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교사와 학부모 모두 혁신학교가 모든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데에 모두 동의하고 있으며, 특히 혁신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80%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혁신학교로 나타난 변화는 일반학교의 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백병부, 2014)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의 62.2%, 중학교 교사의 68%, 고등학교 교사의 51.1%가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의 수업 혁신에 도움

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혁신학교 교사들이 여타 학교 교사들보다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여타 학교 교사들도 50% 상회하는 동의 정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파일럿스쿨이자 허브스쿨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혁신학교가 모든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교사)>

셋째,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와 비교하여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민주적 협의 문화”이다. 전북교육청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모두에서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적 협의 문화이다. 이것은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교사역량강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차이를 보여주는 항목이기도 하다. 이것은 전남교육청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른 항목에 비해 무지개학교 교사들과 일반학교 교사들 사이에 가장 큰 응답률의 차이를 보인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과 협력 문화 정착”이었다. 서울교육청의 연구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교사들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수업연구활동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학교교육의 주체로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수업과 더불어 3주체 생활협약체결과 같은 활동은 이러한 과정을 매개해주는 주요한 활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 그동안

학교 현장은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문화가 지배하였다. 그것은 교장과 교사,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데 서울형 혁신학교 등에서는 학교 내 생활규정과 관련하여 강제규정과 자율규정으로 나누어 강제규정은 최소화하고 자율규정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약을 체결하여 지키고 있다. 이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생, 교사, 학부모의 상호 민주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관계는 생활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수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학생과 교사와의 민주적 관계로 상호 존중과 신뢰의 문화가 형성되면서 수업 활동도 변화기 생겨나는 것이다. 이처럼, 혁신학교에서는 수업과 생활교육이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으며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의 민주화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별화된 관점이 아니라 통합적 관점에서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민주적 협의문화는 혁신학교를 특징짓는 매우 기본적인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것은 학교개혁을 통합적, 총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전북교육청이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혁신학교의 성과를 일반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이라고 하겠다.

넷째, 혁신학교는 새로운 학력 개념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혁신학교는 새로운 학력을 신장시키고 있다. 서울형혁신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형 혁신학교에서는 일반학교에 비해 혁신학교 중등학생들의 학습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혁신학교 연구에서는 삶의 태도, 즉 주체성, 진로성숙도, 사회공헌의식, 사회의식, 시민의식 등에서 혁신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반학교 학생들에 비해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학습자아 개념, 적극적 학습태도, 공동체적 문제해결력, 효능감 등 비인지적 학업 성취면에서도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PISA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교과성적은 1등을 다투지만 학업흥미, 자발성, 행복도 등은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여준 혁신학교의 성과는 우리나라 교육이 추구할 교육과 그에 따른 학력에 대해 새로운 전망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협력중심의 교육 지향”이라는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클레어몬트대학(Claremont College)의 미하이 칩센트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 교수는 교육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실제 생활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요즘에는 혼자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협동은 개인에

게 주도적인 자세를 키워 줍니다. 그 자발성을 부추겨 주는 것이 교육이 가져야 하는 여유 있는 자세입니다. 개인이 어울려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어떻게 진행할까 조율해 나가는 그 시간을 경험하도록 해야 해요. 이것이 교육의 본질입니다.” 결국 혁신학교는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갖고 있던 교육과 학력의 방향을 실천적으로 전환시켜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1기 혁신학교 시기 혁신학교는 일정한 제약요인 속에서 추진된 정책이었다. 그것은 혁신학교의 성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찾아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교육청의 경우, 학년별 비교분석에 의하면, 초,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의 경우, 5개 영역 중 학생자치 활동, 교사와의 관계 형성, 학생권리 존중 영역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강원행복+학교의 방향과 비전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 어느 정도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아직 그렇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광주시 교육청의 경우에도 혁신학교 운영만족도 및 연도별 만족도 상승폭 모두 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를 통해 혁신학교 정책이 추진되는 조건의 제약성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되어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입시를 앞둔 학교급의 경우 혁신학교 성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에 따른 변화가 입시의 강력한 자장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현행 입시제도의 틀 안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통해 결과적으로 입시성적의 성과를 거둔 사례도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시제도라는 커다란 서사의 수레바퀴라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른 한편으로 고등학교의 학교 혁신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오랫동안 혁신학교의 교육과는 거리가 먼 입시중심, 암기 중심과 같은 전통적 교육에 문화의 세례를 받아 성장한 상황에서 혁신학교의 교육이 갖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외에도 혁신학교 정책의 제약요인은 혁신학교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에서 지적한 혁신학교 운영과 정책의 부정적 측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지적 가운데는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에 반영할 만한 것도 있다. 혁신학교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문제, 학교장의 교장초빙권 남용, 학교급간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혼란 문제 등은 충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그러나 특정교원단체 가입교사 편중, 학교내 구성원간 갈등 증

가,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은 실제 존재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만들어 내거나 과대표장된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크다. 혁신학교의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초기 투자 또는 추진주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IV. 혁신학교- 2기 과제

혁신학교 1기 평가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혁신학교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럼에도 그것은 아직 진행형이다. 따라서 혁신학교 2기는 여전히 혁신학교의 지위에 따른 역할을 지속시켜야 한다. 동시에 혁신학교 2기는 혁신학교 이외 학교를 혁신해야 할 과제를 수행해야한다. 혁신학교의 양적 확대는 무한정 할 수 없고, 또한 양적 확대의 속도와 학교개혁에 대한 대중적 요구가 불일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혁신학교 2기는 혁신학교 1기의 제약조건도 극복해야 한다. 다행히 혁신학교 2기는 혁신학교에 대한 우호적 조건이 형성된 상태이다. 절대 다수의 교육청이 혁신학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이에 대한 국민여론도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혁신학교 1기에 혁신학교정책 추진을 가로막았던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개혁 일반을 넘어 교육개혁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혁신학교 2기 출발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

1. 혁신학교의 위상과 역할을 공유해야

2014년 6.4 지방선거 결과가 말해 주듯, 혁신학교는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는 대표적 교육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14년 3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혁신학교에 대한 지지도가 62.9%에 달하였다. 이런 인기에 비해, 실제로 혁신학교가 어떤 학교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경우 “자사고나 특목고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학교 중 하나일 것이다”, “다른 학교보다 좀 더 나은 학교일 것이다”, “선생님들의 자발성이 높아 더 열심히 가르치는 학교일 것이다”, 심지어 일부 혁신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경우 “전교조 학교, 진보 특권학교이다”라고 알고 있다.

나아가 혁신학교를 이미 추진해온 교육청들의 경우에도 혁신학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충분한 공유가 미흡한 상황이다. “전남교육청의 각종 문헌을 분석해 볼 때, 무지개학교는 ‘공교육 혁신모델’로서의 위상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운영계획서에 따르면 무지개학교를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을 실현해 나가는 미래지향적 혁신학교’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운영 목적으로 “학교의 자율화 .다양화.특성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 창출”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경기), ‘공교육 정상화의 성공사례를 창출·보급하는 학교’(광주) ‘공교육 내실화의 성공 모델을 창출하여 이를 확산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감이 지정·운영하는 학교’(전북) 등 타 시도 혁신학교에 비해 정책 목표와 위상이 애매한 것이라 할 수 있다.”(무지개학교 운영 성과 평가 연구. 2013)

이런 상황에서 혁신학교 2기를 시작하는 지금, 혁신학교의 위상과 역할을 확인하는 것은 긴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학교 2기에서는 1기에 비해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치사회적 중심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청의 경우도 다양한 교육정책 사업을 구상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 혁신학교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교육청 정책 내용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미래형 학교 모델을 지향하는 무지개학교가 지정·운영되는 조건에서 미래형 수업혁신과 교육력 제고를 위한 독서·토론수업 선도학교가 별도로 운영되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미래형 학교의 핵심은 미래형 교육과정과 수업의 혁신이어야 한다. 그런데 두 과제를 분리하여 별도의 정책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책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정책의 효과도 감소시키는 것처럼 보인다.”(무지개학교 운영 성과 평가 연구. 2013)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교육청, 그것을 실천하는 단위 학교, 이와 관련된 학생, 교사, 학부모, 일반 시민들이 혁신학교의 위상과 역할을 충분히 공유하고 합의할 때 혁신학교의 정책적 의의도 살고 성과도 가시화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혁신학교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최소한의 내용적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혁신학교의 위상과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혁신학교는 현행 학교 체제의 문제를 극복하여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경험해 온 학교와는 다른 학교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대안적, 실험적 성격을 지닌다. 이것은 공교육 체계 전체를 바꾸어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이 목표는 일시에 달성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혁신학교는 파일럿 스쿨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공교육 체계 전체를 바꾸어야 하는데 일시에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우선 준비된 학교를 중심으로 점차 바뀌어나가자는 것이다. 이런 경험이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학교 전체는 예기치 못한 속도로 일시에 바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나아가 혁신학교는 파일럿스쿨임과 동시에 다른 학교에도 영향을 미치는 허브역할을 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2. 혁신학교의 질 확보 및 확산은 “계몽”이 아닌 “수평적 전이”로
혁신학교의 수가 확대되면서 혁신학교의 질도 담보하지 않은 채 혁신학교를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혁신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경우, 혁신학교라는 이름만 내걸었지 실제 혁신학교로서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일부 혁신학교에 대한 과잉기대이기도 하지만, 일부 혁신학교의 경우 혁신학교의 방향과 내용보다는 재정적 지원금에 관심을 두고 프로그램 중심의 실적 쌓기용으로 혁신학교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 일견 타당한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혁신학교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실제 일부 교육청의 경우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라는 목표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이런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 개혁은 해방이후 계속되어 왔다. 각종 연구학교와 시범학교는 물론 1995년에는 학교자율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본격화되었다. 이들 정책들은 정부 주도로 학교교육 개혁 주제를 선정하여 학교 현장으로 전달하는 하향적(Top-down) 방식의 개혁을 시도한다는 특징으로 인해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과 고민을 충분히 담아 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나아가 학교자율화정책의 경우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어서 오히려 학교교육의 문제를 더 심화 시켜오고 있다. 특히, 이 정책은 학교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사들을 대상화했다.

물론 아래로부터 학교를 바꾸려는 시도도 있었다. 예를 들어 열린교육운동은 1980년대 하반기에 시작 되어 큰 호응을 얻었고 1993년 시험학교를 지정하면서 시·도 교육청 및 교과부와 연결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교육행정기관이 지정하는 시범학교 형식으로만 진행되었고, 주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수학습 방법론 차원의 변화를 넘어서지 못하였다.

이상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밑으로부터 자발적인 학교개혁운동을 시작

한 것이 바로 혁신학교이다. “만일 혁신학교 정책이 교육부가 정책 매뉴얼과 예산을 내려주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식의 ‘TOP-DOWN’ 방식이었다면 이러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교육부가 주도한 교육개혁 방식이 아래로부터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방식이 아닌 위로부터의 획일적·지시적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간의 교육개혁은 실패하거나 성과가 미미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김승환, “혁신학교와 공교육 혁신”, 2013) 이런 점에서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개혁 정책의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혁신학교정책의 확산 경로를 전통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교육청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혁신학교의 교육과정을 모델로 매뉴얼로 만들어 해당교육청 모든 학교에 실시토록 강제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기존의 교장제도를 활용하여 현장교사들에게 과도하게 개혁과제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혁신학교 확산은 그 본래 정신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계몽 군주형” 혁신학교 확산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혁신학교의 확산은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혁신학교가 이론 소중한 가치와 성과들을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다른 학교에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사와 학부모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배우게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성공 경험이 주변학교들에게 자연스럽게 파급·확산되어 혁신학교와 주변학교가 동반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수평적 전이 방식으로 혁신학교는 모든 학교의 혁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김승환, “혁신학교와 공교육 혁신”, 2013)

3. 혁신학교의 일반화는 제도 개선과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혁신학교 정책은 혁신학교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학교 혁신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혁신학교의 기본적 위상과 역할을 다시 상기시키는 말이다. 그렇다면, 혁신학교를 어떻게 일반화할 것인가? 혁신학교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천적 관점에서도 무의미한 것이다. 혁신학교를 통해 제시된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은 어느 임계점에 이르면 우리나라 공교육의 표준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혁신학교의 일반화는 일정 수준의 양적 확대와 혁신학교 정신에 상응하는 제도개선 및 인프라 지원이라는 두 가지 트랙으로 가야할 것이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자치 혁명: 진보교육감 4년, 성과와 과제, 2014) 물론 혁신학교의 양적확대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도 논란거리이고, 그 정신에 따른 제도 개선과정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학교를 둘러싼 각종 제도들이 과거 국가주의적, 관료주의적, 시장주의적 방식으로 형성된 반면, 교육자치적, 민주적, 공공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트랙 중 일정 수준 혁신학교의 양적 확대는 아직 필요하다.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실천적인 모델로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그 실천경험의 축적해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단순히 교육실천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 과정은 학교를 둘러싼 각종제도 중 어떤 요소가 새로운 교육활동을 실천하고 공교육의 표준을 만들어내는데 장애가 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준다. 가산점제도를 통한 승진제도가 대표적이며, 교원들의 순환근무제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현행입시제도가 얼마나 학교 현실을 왜곡하게 하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드러낼 것이다.

한편 제도개선 및 인프라 지원은 혁신학교에 국한되었던 변화가 일반학교에도 나타나도록 할 것이다. 특히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인프라 지원 정책은 혁신학교 재정지원을 둘러싼 논란을 줄이게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일반학교가 금세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정책은 사람의 변화나 주체 형성과 상관없이 집행이 가능한 정책, 예를 들면 친환경무상급식과 같은 것이 있다. 이러한 성격의 정책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 정책적 효과를 단기간에 확인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혁신학교 정책은 그 속성상 사람의 변화와 주체의 형성을 병행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혁신학교 정신에 입각한 제도를 개선할 때는 이러한 사람의 변화와 주체 형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혁신학교의 일반화는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청과의 관계에 한정지어서는 불가능하다. “마을이 학교다”라는 슬로건이 암시하듯, 학교 혁신은 학교의 역할 재규정, 지역사회와의 역할 분담 및 교육적 재구성을 위한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육을 매개로 교육청,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상호 협력적 관계를 맺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혁신학교의 일반화를 꾀하기 위해 2010년도 이후 경기도 혁신교육지구사업과

2012년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구로금천혁신교육지구사업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혁신학교에 국한된 새로운 문화를 학교 밖으로 확산시키고 특정 지역 전체 문화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혁신학교 일반화는 혁신학교의 일정한 확대와 제도개선이라는 두 가지 트랙,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교육공동체 구축이라는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경기도 혁신교육지구 사업 발전방안 연구, 2014)

여기서 유의할 사항이 있다. 혁신학교를 일반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반학교와 혁신학교를 대비하여 일반학교를 대상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학교 중 학교혁신의 주체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 학교혁신의 주제에 맞는 교육실천을 해온 주체들이 산재해 있다. 이들을 엮어내고 지원하는 것은 학교 혁신의 주체를 형성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4. 교육청과 교육부의 역할 및 정책을 조율할 “합의체” 만들어야

혁신학교 정책은 학교에서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를 둘러싼 교육청, 교육부의 역할을 재구성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이들 기관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학교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정책적 요구를 집행하는 기관이었다. 사교육의 경감을 위해 학교는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출산을 저하를 막기 위한 교육을 시행 하는 등 사회문제를 학교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해결하면서 정착 학교가 해야 할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은 뒷전으로 밀린다. 혁신학교에서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으로 이해한다. 학교교육계획서는 워크숍을 통해 같이 만든다. 학교의 정규수업을 중심에 둔다. 정규수업을 보조하기 위한 행사를 기획한다. 교사들간 수업이 상호 연계성을 갖도록 노력한다.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모든 교육행정은 학교의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돕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청과 교육부가 탁상에서 현장으로, 지시에서 지원으로, 칸막이 행정에서 협력하는 행정으로 변화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한 행정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을 바꾸고 인적 물적 자원을 전면 재배치 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법률도 제 . 개정해야 한다. 이런 전환은 커다란 비용을 치를 것이다. 특히,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통해 정책을 시행하고 관료적으로 지배해 왔던 관행은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혁신학교 정책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과 함께 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서울의 한 혁신학교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과교실제를 포함하여 서울시 교육청의 여타 다른 시범학교 등을 동시에 학교에서 수행함으로써 교사들은 혁신학교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2016년 전면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자유학기제와 같은 교육부 정책 문제도 직면할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진로교육 강화, 교육과정 자율적 운영, 수업방식의 변화, 학력 평가의 혁신 등을 지향한다. 이것의 긍정적 의미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혁신학교가 지향하는 학교문화의 혁신 없이는 현장 착근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자유학기제 연구시범학교와 혁신학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양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혁신학교의 건강한 학교 문화를 바탕으로 자유학기제를 수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자유학기제가 갖는 한계, 즉 가산점 부여, 각종 전시성 행사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상호 모순된 정책이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혁신학교의 위상과 역할을 공감한다고 할 경우 이 상황에서 혁신학교 정책의 정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여타 다른 정책들을 조절하고 과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나아가 혁신학교 정책은 최근 자사고 문제를 둘러싼 논쟁, 지방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등과도 상호 대립적인 지향을 갖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혁신학교 정책이 현장에 착근하고 그 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는데 정치권, 언론, 여론 등 현실적인 힘의 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들이다.

이상과 같이 혁신학교 정책의 성격상 도출되는 변화, 이와 대립하고 충돌되는 정책들은 어떤 형태로든 조절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일들은 우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육문제를 다룰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5. 혁신학교정책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혁신학교는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교육감의 성향과 관련된 정책이므로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1년 혁신학교 정책을 시작하였지만 2012말 이후 2014년 지방선거 시기까지 혁신학교정책을 폐지하려는 시도로 인해 혁신학교 정책이 유실될 위기가 단적인 사례이다. 이에 따라 혁신학교 정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발생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도 2013년 시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 폐지 시도에 대응한 혁신학교 조례 제정 움직임으로 인해 논란이 일었고, 전북 등은 혁신학교 조례를 제정한 상태에서 혁신학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에서도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혁신학교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최근에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학교개혁운동으로 출발한 혁신학교가 교육제도와 결합...혁신학교는 학교현장에서의 자발적인 학교개혁운동을 자율학교로 인정하는 학교제도와 결합시킴으로써 상향적 자율성을 확보하였다”고 하면서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의 한 유형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에서는 법적 지원 방안으로 “현행법상 교육감에게 부여된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유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아니하거나, 형해화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령에 근거한 혁신학교지원조례의 제정은 적법하다”고 하면서 “특히 자율학교 지정권한 등의 일부를 배분하여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재정지원 확보를 중층적으로 담보할 수 있고 기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혁신학교지원조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있다.(혁신학교, 성과와 과제, 2013)

이상의 제안은 혁신학교의 법적 장치 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혁신학교 정책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도교육청의 경우는 앞서 제정된 혁신학교지원조례와 경기도의 제안 내용을 기초로 혁신학교 정책의 안정적 법적 장치인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현행법체계 안에서 혁신학교의 법적 안정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한계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 제안은 2014년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 전국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만 진행되는 혁신학교 정책을 전제한 상황에서 방어적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장치는 혁신학교가 우리나라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나가고 있는 학교라는 위상 및 역할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고등학교의 구분)에 따르면 고등

학교는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된 고등학교와 혁신학교는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영향을 서로 받으며 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법률적 관계가 불명확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학교는 여러 학교의 종류 중 하나로서 선택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것은 기존의 공교육패러다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혁신학교 도입 목적 달성은 불가능하게 된다.

물론 혁신학교의 위상을 현실적인 법적 테두리에서 찾고 그 안에서 혁신학교 정책의 목적을 부분적으로 달성하면서 다른 제도를 점차 변화시키자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는 별도의 위상을 갖도록 할 때, 기존의 교육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는 별도의 법률 제·개정 작업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6. 단기적, 장기적 딜레마 극복과 새로운 교육 담론 확산 노력을 해야

혁신학교 정책은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란 혁신학교정책추진 그 자체에 내재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혁신학교는 학교업무정상화를 지향한다. 교사들이 불필요한 업무로부터 해방되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내용이다. 나아가 학교 내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 분담으로 사회복지사, 사서교사 등 전문화와 분업화 과정이 진행된다. 그러나 여기서 교사의 책무성은 딜레마에 처해진다. 우선, “교사의 기능이 전문화되면 될수록 다른 이웃 전문가로의 업무 이전이 일상화되고, 각 위임자들은 학생과 대면하면서 단순히 ‘대리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고민해 왔던 사회적 합리화 과정의 예기치 않은 비관적 결과에 속합니다.”(조상식,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 방안: 실험과 실현 사이에서”, 2010) 다음으로, 학교 내의 전문화와 분업화는 비정규직의 대량 양산이라는 문제 상황을 만든다. 이는 혁신학교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무상급식으로 인한 급식 종사원, 행정실무사 등 최근 혁신학교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양산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혁신학교는 학교문화의 변화를 통해 수업혁신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추구한다. 전통적 학교교육의 문제점인 입시교육 중심의 교과교육

을 지양하고 협력과 발달을 중심으로 교육하면서 비인지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의 성취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입시경쟁구조에서 실천된다는 것이다. 입시경쟁구조가 온존하는 한 학부모 집단의 욕구와 이해관계는 그들 집단간 또는 내부에서 서로 충돌하면서 부단히 표출되고 있다. 학부모 집단이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와 이해관계 중 혁신학교 정책과 부합하는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 입시를 최고의 학업성취로 보는 학부모들의 경우 이러한 욕구 분출은 더욱 강하다. “의도하는 수업혁신을 통해 길러진 아이들이 분명 논술학원에서 단기간 작위적으로 길러진 아이들보다 훨씬 뛰어나리라고 확신할 수 있지만, 학부모들의 조급성과 사교육 시장의 장애물을 능가하기가 쉽지만은 않다”.(조상식,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 방안: 실험과 실현 사이에서”, 2010)

이상의 딜레마 상황과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것은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교육담론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은 불가피하게 지금까지 통용되온 교육 담론과 그것을 주도한 그룹과의 “개념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혁신학교의 추진주체를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지적인 것처럼 혁신학교의 핵심 주체는 교사이다. 혁신학교의 동력은 교사의 자발성이며 이를 불러일으킬 불씨 역할을 할 핵심 주체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혁신학교에는 중심적 역할을 교사들이 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현장 교사들에 의존해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혁신학교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그중 혁신학교를 이끌 교사들의 변화가 그리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양성 및 선발과정의 변화를 고민할 때가 되었다. 둘째, 교육학 연구자들과의 논쟁과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소홀히 해 왔던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교수노조나 민교협 등 이론가 그룹과의 결합으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들 그룹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거나 혁신학교 전문이론가들의 네트워킹을 적극적으로 구성하여 인적 자원 확보와 담론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가칭 “혁신교육학회” 구성도 필요하다.

셋째, 혁신학교는 학부모들의 지지와 지원이 절대적이다. 혁신학교와 이에 따른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형성과 관련하여 ‘문화적 지체’ 현상을 극복하는 일은 혁신학교의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끌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전북, 서울, 광주, 경기 일부에서는 이미 혁신학교 학부모 모

임이 결성되어 혁신학교를 견인하고 지원하는 일을 잘 해내고 있다. 교사들이 혁신학교의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혁신학교를 만들어 가는 것 못지않게 학부모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결집하는 것도 혁신학교 확산 전략에 매우 중요하다.

참고문헌

- 구자역 외(2013). 2013년 서울형 혁신학교 평가 연구사업 결과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재)경기도교육연구원(2013). 교육시선, 오늘. 2013준비호2. 경기도교육연구원.
- (재)경기도교육연구원(2013). 혁신학교, 성과와 과제. 경기도교육연구원 개원기념 심포지엄자료집
- 광주광역시교육청(2014). 2014 빛고을혁신학교추진 기본 계획.
- 김성천 외(2012). 혁신학교 성과분석 및 확산. 경기도교육연구원정책개발팀.
- 김승환(2013). “혁신학교와 공교육 혁신”.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향한 혁신학교의 가능성과 과제. 국회토론회자료집
- 김용련 외(2014). 경기도 혁신교육지구 사업 발전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청.
- 김희규 외(2013). 행복 더하기 학교 성과 분석. 강원도교육연구원
- 나민주 외(2013). 자율학교성과분석연구: 혁신학교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백병부 외(2013). 경기도 혁신학교 성과 분석. 경기도교육연구원.
- 백병부 외(2014). 경기도 혁신학교중장기 발전방안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 성기선 외(2013). 무지개학교 운영성과 평가 연구. 함께여는교육연구소.
- 이광호 외(2012). 혁신학교 성과 분석 및 확산 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청
- 이윤미 외(2013).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학교혁신 방안 연구 : 혁신학교 운영성과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의회.
- 정태식 외(2013). 2013 혁신학교의 학교효과성 분석. 전북교육정책연구소
- 조상식(2010).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 방안: 실험과 실현 사이에서”.

일반고 위기와 혁신학교

백병부(경기도교육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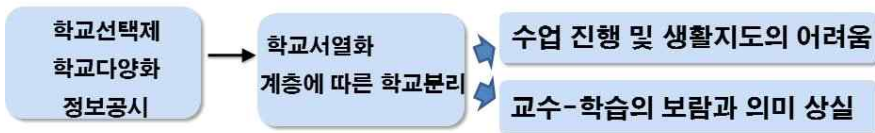
1. 서론

● 일반고의 위기

칠판 앞에 서서 수업을 하다 보면 나와 눈을 마주치며 내 얘기를 듣는 애들이 한 교실에 4분의1이 채 안 됩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딴짓을 하거나 떠들거나 그러다 지치면 엎드려 잠들죠. 학교 생활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의 눈을 보면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회의와 우려가 들 때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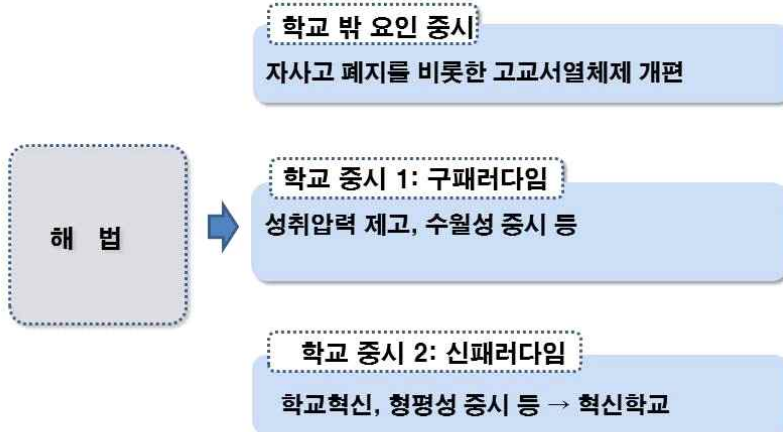
교직경력 29년차 교사의 고백(서울신문, 2013. 4.9.)

1. 서론



학교=계층 이동의 사다리?
계급재생산의 장치?

1. 서론



2. 본론: 구패러다임의 한계

● 성취압력은 일반고 위기 극복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고정효과	영어				수학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초기값								
평균	508.46***	.94	508.25***	.94	486.97***	.89	486.76***	.89
ses	18.78***	.82	11.53***	1.89	11.38***	.77	4.33*	1.77
성취압력	5.08***	.84	3.68**	1.03	5.89***	.78	4.13***	.96
ses최상*성취압력			4.47***	1.11			4.39***	1.05
ses중상*성취압력			1.63*	.83			2.36**	.79
ses중하*성취압력			-.46	.61			.16	.58
변화율								
평균	21.60***	.48	21.61***	.48	6.07***	.52	6.07***	.52
ses	-2.03***	.41	-1.58+	.95	-.70	.44	.03	1.03
성취압력	-.61	.42	-.41	.52	-.04	.44	.29	.55
ses최상*성취압력			-.32	.56			-.34	.60
ses중상*성취압력			-.23	.42			-.77	.45
ses중하*성취압력			-.25	.31			-.19	.34

2. 본 론: 실패러다임의 성과

	집단	N	M	SD	F	사후검정
수업 및 평가 혁신	1. 상	1708	4.96	2.648	117.770***	1-2***
	2. 중	1083	5.59	2.460		1-3***
	3. 하	1704	6.31	2.547		2-3***
	합계	4495	5.63	2.631		
수업 외 활동 혁신	1. 상	977	4.69	2.735	129.795***	1-2***
	2. 중	1967	5.52	2.470		1-3***
	3. 하	1552	6.35	2.555		2-3***
	합계	4496	5.63	2.631		
학교만족도	1. 상	1675	4.93	2.615	123.898***	1-2***
	2. 중	1250	5.65	2.506		1-3***
	3. 하	1562	6.35	2.547		2-3***
	합계	4487	5.63	2.630		

t는 설문응답자수, N는 평균, SD: 표준편차; *** p<.001, ** p<.01, * p<.05, + p<.10

재학 중인 학교의 위기 정도 비교(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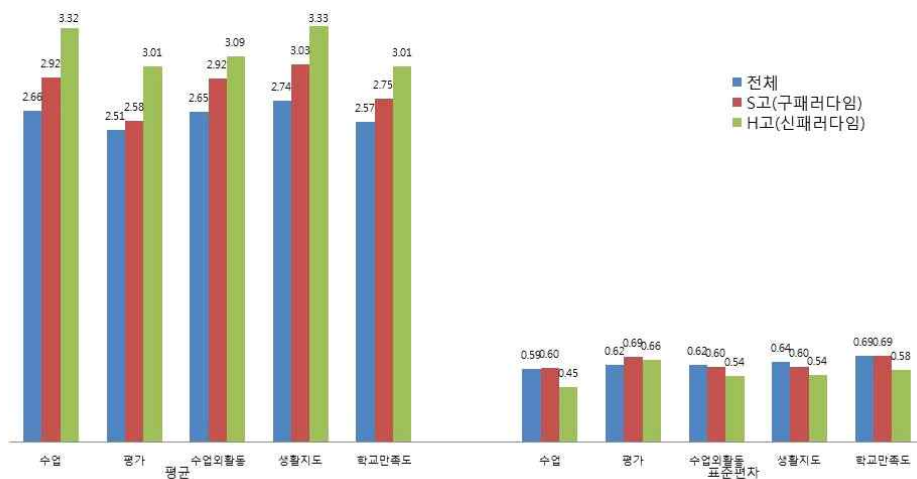
2. 본 론: 실패러다임의 성과

	집단	N	M	SD	F	사후검정
수업 및 평가 혁신	1. 상	1558	4.80	2.720	135.909***	1-2***
	2. 중	1019	5.51	2.488		1-3***
	3. 하	1943	6.26	2.587		2-3***
	합계	4520	5.58	2.689		
수업 외 활동 혁신	1. 상	903	4.39	2.797	183.353***	1-2***
	2. 중	1886	5.41	2.484		1-3***
	3. 하	1729	6.39	2.581		2-3***
	합계	4518	5.58	2.688		
학교만족도	1. 상	1601	4.63	2.678	206.461***	1-2***
	2. 중	1177	5.62	2.460		1-3***
	3. 하	1734	6.44	2.551		2-3***
	합계	4512	5.59	2.688		

t는 설문응답자수, N는 평균, SD: 표준편차; *** p<.001, ** p<.01, * p<.05, +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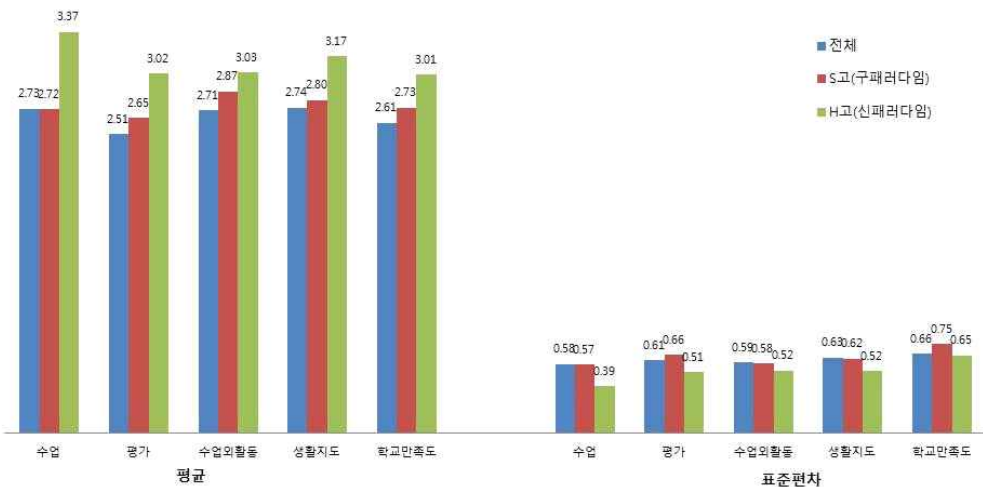
재학 중인 학교의 위기 정도 비교(3학년)

2. 본론: 신파러다임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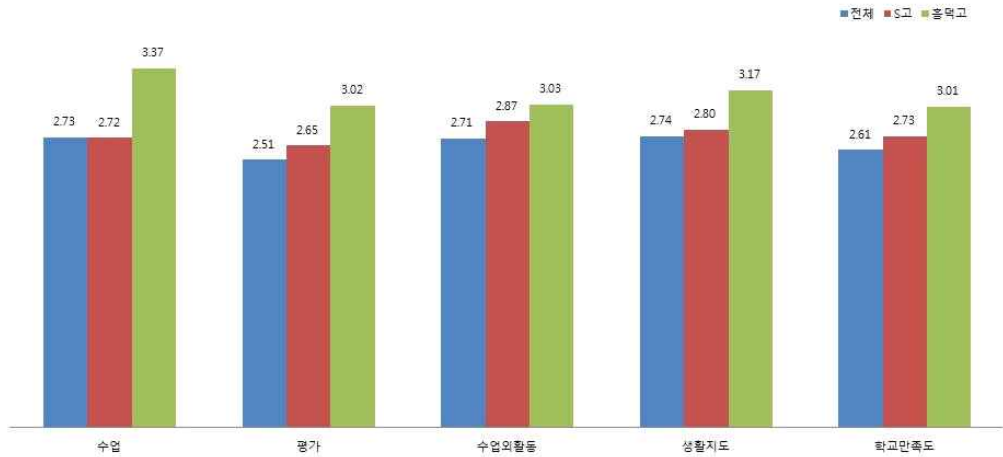
학교혁신 및 학교만족도에 대한 인식 비교(3학년 학생)

2. 본론: 신파러다임의 성과



학교혁신 및 학교만족도에 대한 인식 비교(2학년 학생)

2. 본론



학교혁신 및 학교만족도에 대한 인식 비교(2학년 하위권)

2. 본론: 신파러다임의 성과

삶의 태도 결정요인 분석(다층분석)

	주체성				진로성숙도				사회공헌의식			
	model II		model III		model II		model III		model II		model III	
	b	se	b	se	b	se	b	se	b	se	b	se
학생 수준												
성별	-.01	.02	-.01	.02	-.01	.03	-.01	.03	-.01	.03	-.00	.03
경제상황	.00	.02	.00	.02	.01	.02	.01	.02	-.00	.02	-.00	.02
부모학력	-.00	.00	-.00	.00	-.00	.00	-.00	.00	-.01	.00	-.01	.00
부모관심	.17***	.02	.16***	.02	.17***	.02	.17***	.02	.20***	.02	.20***	.02
중3성적	.07**	.02	.07**	.02	.06**	.02	.06**	.02	.09***	.02	.09***	.02
고1모의고사성적	-.04***	.01	-.04***	.01	-.04**	.01	-.04**	.01	-.02*	.01	-.03*	.01
학교 수준												
Ses	.35	.28	.03	.19	.42	.29	.12	.21	.32	.26	.08	.21
중3성적	.08	.23	-.12	.15	-.00	.23	-.22	.16	.08	.21	-.07	.17
고1모의고사성적	.27+	.15	.03	.10	.36*	.15	.13	.11	.27+	.14	.09	.12
혁신학교 여부	.24*	.10	.03	.07	.23*	.10	.04	.08	.19+	.09	.04	.08
학교혁신정도			.55***	.11			.53**	.12			.44**	.12

2. 본론: 실패러다임의 성과

삶의 태도 결정요인 분석(다층분석)

	사회의식				시민의식			
	model II		model III		model II		model III	
	b	se	b	se	b	se	b	se
학생 수준								
성별	-.03	.03	-.03	.03	.09**	.03	.09**	.03
경제상황	-.03	.02	-.03	.02	-.00	.02	-.00	.02
부모학력	.00	.00	.00	.00	-.01	.00	-.00	.00
부모관심	.17***	.02	.17***	.02	.17***	.02	.17***	.02
중3성적	.08**	.02	.08**	.02	.07**	.02	.07**	.02
고1모의고사성적	-.02*	.01	-.02*	.01	-.02+	.01	-.02*	.01
학교 수준								
Ses	.28	.27	.00	.20	.36	.26	.11	.16
중3성적	.07	.21	-.11	.16	.05	.21	-.10	.13
고1모의고사성적	.24	.14	.04	.11	.34*	.14	.14	.09
혁신학교 여부	.19+	.09	.02	.08	.18+	.09	.00	.06
학교혁신정도			.50**	.12			.52***	.09

2. 본론: 실패러다임의 성과

비인지적 학업성취 결정요인 분석(다층분석)

	학업자아개념				학습태도			
	model II		model III		model II		model III	
	b	se	b	se	b	se	b	se
학생 수준								
성별	-.05	.03	-.05	.03	-.11**	.03	-.11**	.03
경제상황	.03	.02	.03	.02	-.01	.02	-.01	.02
부모학력	-.01	.00	-.01	.00	.00	.00	.00	.00
부모관심	.25***	.02	.25***	.02	.22***	.02	.21***	.02
중3성적	.09**	.02	.09**	.02	.07*	.02	.07*	.02
고1모의고사성적	-.06***	.01	-.06***	.01	-.07***	.01	-.07***	.01
학교 수준								
평균 ses	.13	.28	-.14	.19	.31	.27	.07	.23
평균중3성적	.19	.22	-.02	.15	.24	.22	.06	.18
평균고1모의고사성적	.15	.15	-.05	.10	.24	.15	.08	.13
혁신학교 여부	.17	.10	-.00	.07	.14	.10	.00	.09
학교혁신정도			.56***	.11			.43**	.13

2. 본론: 실패러다임의 성과

비인지적 학업성취 결정요인 분석(다층분석)

	공동체적 문제해결력				효능감			
	model II		model III		model II		model III	
	b	se	b	se	b	se	b	se
학생 수준								
성별	-.02	.03	-.02	.03	-.13***	.03	-.13***	.03
경제상황	-.01	.02	-.01	.02	-.00	.02	-.00	.02
부모학력	-.01	.00	-.01	.00	-.00	.00	-.00	.00
부모관심	.22***	.02	.22***	.02	.21***	.02	.21***	.02
중3성적	.07**	.02	.07**	.02	.12***	.02	.12***	.02
고1모의고사성적	-.06***	.01	-.06***	.01	-.05***	.01	-.05***	.01
학교 수준								
평균 ses	.39	.27	.08	.18	.20	.26	-.06	.21
평균 중3성적	.17	.21	-.04	.14	.11	.21	-.06	.16
평균 고1모의고사성적	.25	.14	.02	.10	.17	.14	-.00	.11
혁신학교 여부	.25*	.09	.07	.07	.14	.09	.01	.08
학교혁신정도			.54***	.10			.47**	.12

2. 본론: 실패러다임의 성과

인지적 학업성취 결정요인 분석(다층분석)

	국어A				국어B			
	model II		model III		model II		model III	
	b	se	b	se	b	se	b	se
학생 수준								
성별	5.33***	.10	5.26***	.13	5.36***	.12	5.33***	.13
	-.17+	.10	-.17+	.10	-.29**	.10	-.29**	.10
경제상황	-.01	.08	-.01	.08	-.11	.08	-.11	.08
부모학력	.00	.02	.00	.02	-.04+	.02	-.04+	.02
부모관심	.04	.08	.04	.07	-.04	.09	-.04	.09
중3성적	-.19**	.06	-.19**	.06	-.25**	.07	-.25**	.07
고1모의고사성적	.45***	.03	.45***	.03	.51***	.03	.51***	.03
학교 수준								
평균 ses	-.19	.39	-.08	.44	-.19	.37	-.06	.43
평균 중3성적	-.11	.45	.01	.50	-.19	.46	-.10	.49
평균 고1모의고사성적	.37+	.18	.48+	.24	.17	.20	.24	.22

2. 본론: 실패러다임의 성과

인지적 학업성취 결정요인 분석(다층분석)

	수 학 A				수 학 B				
	model II		model III		model II		model III		
	b	se	b	se	b	se	b	se	
학생 수준									
성별	5.49***		.09	5.50***	.10	5.60***	.15	5.50	.18
	-.10	.09	-.10	.09	.17	.15	.15	.15	.15
경제상황	-.00	.07	-.00	.07	.04	.12	.06	.12	.12
부모학력	-.00	.02	-.00	.02	-.04	.04	-.03	.04	.04
부모관심	-.17*	.07	-.17*	.07	-.12	.12	-.12	.12	.12
중3성적	-.14*	.06	-.14*	.06	-.11	.10	-.10	.10	.10
고1모의고사성적	.49***	.03	.49***	.03	.34***	.05	.35***	.05	.05
학교 수준									
평균 ses	.31	.31	.31	.36	-.52	.53	-.44	.52	.52
평균중3성적	-.08	.36	-.09	.40	.93	.58	1.20+	.61	.61
평균고1모의고사성적	.41*	.15	.40+	.19	.56*	.25	.74*	.29	.29
학교특성	.10	.10	.10	.14	.11	.1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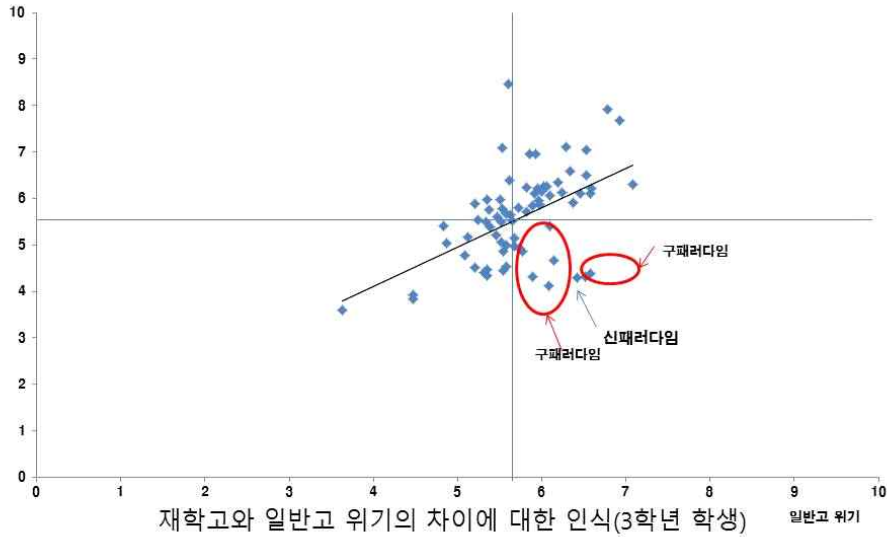
2. 본론: 실패러다임의 성과

인지적 학업성취 결정요인 분석(다층분석)

	영어 A				영어 B			
	model II		model III		model II		model III	
	b	se	b	se	b	se	b	se
학생 수준								
성별	5.61***	.17	5.46***	.19	5.42***	.11	5.32***	.11
경제상황	-.30*	.13	-.27*	.13	-.07	.10	-.08	.09
부모학력	-.33**	.10	-.33**	.10	-.14+	.08	-.13+	.08
부모관심	-.01	.03	-.01	.03	-.03	.02	-.03	.02
중3성적	.03	.10	.02	.10	-.05	.08	-.06	.08
중3성적	-.18*	.09	-.19*	.09	-.22***	.06	-.21**	.06
고1모의고사성적	.50***	.04	.50***	.04	.53***	.03	.52***	.03
학교 수준								
평균 ses	.53	.63	.97	.68	-.53	.41	-.24	.37
평균 중3성적	.28	.74	.71	.78	.03	.47	.46	.43
평균 고1모의고사성적	.49	.31	.80*	.36	.14	.21	.39+	.20
학교 특성	.00	.00	.00	.00	.17	.14	.4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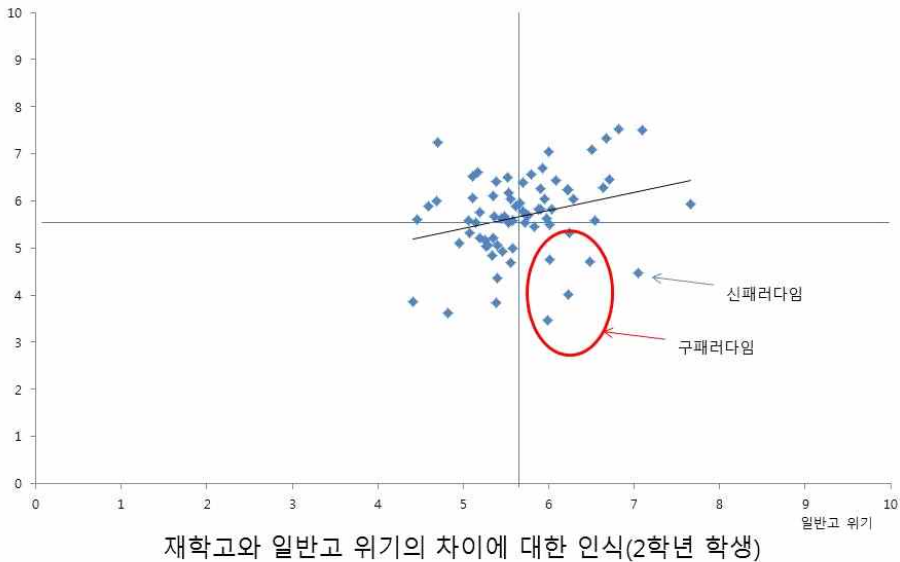
2. 본 론: 실패러다임의 과제

재학교 위기



2. 본론: 실패러다임의 과제

재학교 위기



2. 본론: 신패러다임의 과제



성적별 학교혁신 및 학교만족도에 대한 인식 비교(2학년 상위권)

3. 요약 및 결론

- 혁신학교는 전통적인 학업성취의 손실 없이 대안적, 미래적 역량 계발에 성공
- 혁신학교의 성공은 수업과 평가를 비롯한 총체적 학교혁신에서 비롯됨.
- 문제는 총체적 학교혁신은 낯설고 어려운 과제라는 것임. 혁신학교의 고립 초래할 가능성 있음.
- 일반고 위기 담론 속에서 구패러다임의 복원을 추구하는 학교 증가함.
- 이들 학교는 상위권 학생에 대한 집중 투자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
- 혁신학교는 신패러다임에 입각한 해법 제시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상위권 학생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혁신학교운동과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천보선(참교육연구소)

1. 혁신학교 운동은 새로운 교육패러다임¹⁾ 운동이다.

- 혁신학교 운동은 교육과정과 수업에서부터 학교문화, 지역사회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학교변화를 추구하는 포괄적 ‘학교개혁’ 운동으로 출발. 따라서 다양한 경향성과 내용적 지향을 지니고 시작됨.
- 혁신학교운동은 학교의 변화에만 갇히는 운동이 아님. 혁신학교 운동에는 출발부터 공교육 전반을 변화시키고자하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에 대한 지향이 내재되어 있었음 : 경쟁보다 협력, 통제보다 자율, 행정보다 교육, 억압이 아닌 인권 등으로 표출.

구분	비전	추진목적	추진과제	핵심가치
강원	모두를 위한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시위주-점수위주 학교교육의 획기적 개선으로 창의성과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 육성 - 교육공동체의 자발성과 창조성에 기초한 학교장 자율-책임 경영 지원 확대 -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 - 강원도형 맞춤형 강원행복+ 학교운영을 통한 모두를 위한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 교육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 - 자율과 책무로 교원의 전문성신장 - 학생중심의 교육활동 강화 -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발성 창의성 공공성 지역성
경	공교육	- 학교교육의 당면 문제 극복과 질적	- 자율경영 체제 구	공공성

1) 패러다임은 미국의 과학사가 쿤(Kuhn, T. S.)이 그의 책 《과학 혁명의 구조》(1962)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의 체계. 또는 다양한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구조’를 말한다. 따라서 교육패러다임은 ‘교육현상을 규정짓는 인식론적, 이론적 틀과 구조’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학교효과를 바라볼 때 ‘발달 역량’으로 바라보는 것과 ‘입시 성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교육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의 차이를 보여준다.

기	의 새로운 희망	<p>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현가능한 공교육정상화의 모델 정착 및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지향적 삶과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교육으로 학력과 인성이 조화롭게 발달하는 전인적 학업성취도 향상 - 공교육 혁신과 학생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 신장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 	<p>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지성교육과정 - 민주적 학교공동체형성 - 전문적 학습공동체형성 	<p>창의성 민주성 역동성 국제성</p>
광주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인적 학업성취 달성, 교육의 공공성 실현, 민주적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 전문적 학습공동체구축 -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 - 교육활동중심의 학교운영시스템구축 - 학부모참여, 지역사회협력 - 작은 학교, 소인수학급과 업무경감지원 -학교의 자율성 확대 	<p>공공성 자발성 공동체성 지역성 창의성</p>
서울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로 혁신학교 내실화 추진 -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강화로 혁신학교 구성원의 자발성과 자율성 극대화 - 혁신학교 우수사례 일반화를 통해 서울교육 혁신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 혁신 - 교육과정 혁신 - 수업혁신 - 학생평가방법 혁신 - 생활지도 혁신 - 교육복지 혁신 	
전남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의 당면 문제 극복과 미래사회에 적합한 학교교육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학교혁신모델 정립 : 개인 특성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실현, 창의지성 갖춘 전인적 교육과정 운영,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는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학교의 특성화와 단위학교 자율경영을 위한 학교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학교문화형성 -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다양한 교육방법 실천 - 교육과정중심의 교육지원 체제 구축 -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현 	<p>자발성 창의성 민주성 공공성 미래성</p>
전북	공교육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학교교육 모형 창출과 확산 - 자기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학생의 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움중심의 수업혁신과 교원역량강 	<p>자발성 지역성</p>

	미래 지향적 창의인 재 육성	엄한 성장 도모 - 행복한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화 - 다양하고 특성화 된 교육과정편성운 영 - 소통과 협력의 학 교운영문화조성 - 민주적인 학교운 영 시스템 구축	협동성 공공성 창의성
--	--------------------------	-------------------------------	---	-------------------

<표> 시도교육청별 혁신학교의 비전, 추진목적, 추진과제, 핵심가치
(이윤미 ‘서울교육발전을 위한 학교혁신 방안 연구’, 2013)

- 이는 혁신학교운동이 기존의 관료주의+시장주의 교육이 몰고 온 폐해가 학교교육의 질곡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극복의지에서 출발하였고 기존의 교육패러다임을 넘어 민주주의+공동체 교육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함.

- 패러다임전환에 대한 문제의식이 처음에는 다소 모호하기도 하였으나 혁신학교운동이 확산되면서 패러다임 전환운동의 일환이라는 인식으로 나아가기 시작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 등 새로운 교육적 의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다. ‘경쟁과 차별’을 넘어 ‘협력과 지원’이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수립되었고....”(심정보,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자치 혁명’(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중에서)

- 이광호는 혁신학교가 “우리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면서 변화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

*** 혁신학교를 통한 패러다임 전환**(‘혁신학교성과분석 및 확산방안연구’, 2012)

○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혁신학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음. 혁신학교는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음.

○ 혁신학교는 선발효과보다는 학교 효과를 중시함. 이는 혁신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 선발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들어온 학생을 잘 기르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의미함.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발효과를 통한 명문고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었음. 이는 곧 일류와 이류, 삼류의 구별을 만들어냄.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를 만들어

냄.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벗어나 들어올 때의 역량보다 나갈 때의 역량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학교가 지향하는 철학은 경쟁이 아닌 협력임. 이를 위해서는 학교 문화와 수업이 협력을 지향함.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생 간 상호 협력을 통한 배움이 촉진됨. 이러한 배움을 촉진하기 위해 교사들의 학습공동체는 협력을 기반으로 의미있게 작동함.

○ 혁신학교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개혁'보다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의 가능성을 보임. 교육청 또는 관리자의 지시와 명령이 아닌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내부적인 논의와 학습을 통한 자발성과 역동성으로 학교가 움직이게 됨. 이러한 모형은 학교 혁신의 원동력이 학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 있고, 외부 지시가 아닌 내부의 자각과 반성으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함.

○ 혁신학교는 고립이 아닌 네트워크를 강조함. 기존의 학교는 지역 사회에서 고립된 섬처럼 존재했음. 그러나 혁신학교는 학교와 학교 간, 학교와 지역주민 간, 학교와 지역 단체 간 연대와 네트워크를 강조함. 학교는 지역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게 됨.

○ 혁신학교는 기존의 자율형사립고와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임. 자율형사립고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대신 학부모의 학비에 의존하게 됨. 따라서 개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음. 혁신학교는 공공성에 기반하고 있음.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만큼 사회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교육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학교 예산을 밀도있게 사용함으로써 사부담을 줄이고 공부담으로 대체함.

○ 혁신학교는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진학을 바라봄. 진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학에 종속된 교육을 하지 않음을 의미함. 점수를 조금이라도 높여서 명문대학교에 진학하는데 급급한 교육이 아닌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교육과정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진로교육과정을 설계함. 진로교육과정은 1회적인 체험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을 통해 상시적으로 이루어짐.

○ 혁신학교는 총체적 접근을 꾀함.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도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창의 인성 교육을 추진하면서 대입 체제를 바꾸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입학사정관제, 교과 교실제, 절대평가 요소 도입 등 다양한 실험을 의미있게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낱알의 프로그램이 학교 혁신의 과정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은 분절적인 특성을 보임. 이러한 분절적 특성은 정책의 모순을 야기시킬 수도 있음. 예컨대, 한쪽에서는 창의인성 교육을 말하면서 한쪽에서는 국가학업성취도 평가를 가지고 학교 줄세우기를 진행한다면 정책 모순이 발생하게 됨. 혁신학교는 총체성을 지녀야 함. 학교철학, 교육과정, 수업, 평가, 교사학습공동체, 학교문화 구축, 교원 업무 경감 등등이 낱알의 사업이 아닌 같은 묶음의 사업으로 봐야 함. 어느 하나의 개별 프로그램만으로는 혁신을 이룰 수 없음.

-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인식은 교육과정과 평가 등 구성분야에도 적용되어감.

“교육평가는 서열화를 위한 목적에서 피드백을 위한 목적으로, 양적 평가체제에서 질적평가체제로, 결과중심에서 과정중심으로 평가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경기혁신교육백서 ‘미래형 인재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의 수립과 구현의 상호 연관성을 중시한다...2...”(초등교육과정위원회, 성장과 발달을 돕는 초등교육과정 길라잡이, 2013)

- 이처럼 혁신학교운동은 출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지향이 내재되어 있기도 했으며 평가체제와 교육과정의 문제의식에서 보이듯 발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육전반을 규정하는 원리의 문제로 나아가기도 했음.

- 한편 6/4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 대거 진출에 의한 진보교육시대의 창출은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에 대한 사회적 열망을 보여주고 실현가능성을 확대시킨 것. 또한 혁신학교 운동의 전국적이고도 새로운 지평을 연 것.

-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학교 운동에 내재된 교육패러다임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과 원리, 과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그것은 다음의 의미들을 지닌다고 생각됨. 첫째, 혁신학교 운동의 방향을 보다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둘째, 혁신학교 운동이 단지 해당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 의의를 지님을 공유할 수 있으며. 그를 통해 혁신학교 운동의 지평과 동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봄. 셋째,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혁신학교 운동과 일반학교의 학교혁신 운동의 연결고리가 분명해짐. 넷째, 학교개혁 운동과 제도개혁 운동의 결합과 한국교육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 운동의 지평을 바라볼 수 있음.

2.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운동의 배경

1) 한국교육의 구조적 질곡과 위기 극복

* 한국교육, 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가?

- 한국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입시교육과 비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오래된 질곡 때문.
- 여기에 95년 이후 도입된 교육시장화 정책은 오래된 질곡을 극복하기는 커녕 교육불평등과 사교육심화, 교육주체 갈등심화 등의 새로운 문제를 더 하면서 한국교육을 근본적 위기로 몰고 왔음. 그로 인해 최근에는 ‘수업탈주’ ‘학교폭력’ 등 공교육의 지속성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이름.
- 따라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은 임계점에 다다른 교육위기와 한국교육의 구조적 질곡을 극복하여 교육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것

* 신자유주의의 교육시장화패러다임 파탄

- 교육패러다임과 관련 95년 교육개혁안 이후 도입되어 온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도 하나의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음.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상품으로 규정하면서 공급자/소비자 개념과 경쟁과 선택 원리를 적용하고자 했음.
- 95년 교육개혁안은 기존의 암기 위주의 획일적 교육의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시정화패러다임을 도입하였으나 20여년 가까이 지난 지금 완전한 실패로 판명남. 문제의 극복은커녕 오히려 관료주의와 결합하면서 한국교육을 더욱 기형화시키고 교육위기를 심화해 왔을 뿐임.

=> 관료주의+시장화를 극복하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필요

2) 생활양식 변화/발달 위기에 대한 교육적 대응

최근 학업부적응아의 확대, 아동청소년의 언어능력 감퇴, 공감기능 약화 등의 발달적 문제 현상이 확대되고 있음. 일부의 견해와 달리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현대사회의 교육적 조건은 발달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음. 예컨대 가정과 지역사회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고 수업참여의 준비기능(주의집중, 자기규제 등)을 키우는 놀이문화가 실종된 조건은 학교입학 이전부터 발달의 기초토대가 약화된 것임을 의미하며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대면적 관계와 대화의 축소 역시 아동, 청소년의 발달조건 악화를 의미함. 몇 가지 주요한 지점을 살펴 봄.

(1) 사회적 관계의 축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사회적 관계의 축소이다. 핵가족화와 지역사회 붕괴로 영유아 및 아동기에 접촉하게 되는 사회적 관계가 크게 축소되었고 이로 인해 가정과 지역에서의 교육기능이 많이 약화되었다. 인간발달은 탄생 시기부터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부모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 감각적, 인지적 발달과 언어와 활동의 폭을 키워간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가 축소됨으로써 발달 조건이 크게 약화되었다. 가정에서도 접촉하는 관계가 적어지고 지역에서도 또래 및 놀이공동체 관계가 사라지고 있다.

사회적 관계의 축소를 대체하는 것이 TV, 컴퓨터 등의 매체인데 발달기능에서 대면적 인간관계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발달의 ‘발생’적 관점에서 볼 때 영유아시기 발달조건의 약화는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보육, 유아교육인데 발달 기능을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에서는 조기교육의 온상이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발달을 저해하고 있기도 하다. 그나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경우 어려움은 더 커진다. 사회적 관계의 축소 문제는 영유아기 시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동, 청소년기를 관통하는 핵심 문제 중의 하나이다.

(2) 언어와 문화 환경의 악화

사회적 관계, 어른과의 관계 축소는 언어발달 환경의 축소로 직결된다. 이를 메우는 것이 대중매체와 컴퓨터의 매체, 도구인데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 생각기능이 부재한 것으로 발달을 제약하는 요소가 된다. 아동기에 들어서면서 또래관계가 형성되나 많은 경우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고 또래 관계에 제한된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연령이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은 매우 중요하지만 입시교육의 현실에서 크게 제약받고 있다.

제한적인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언어문화의 대표적 현상이 ‘헐’ ‘줄’로 표현되는 단문, 다의어 현상이다. 어휘력과 의사소통 방식의 향상도 제한된다. 언어 발달이 생각발달의 핵심적 기제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매우 중대한 지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사회적 관계의 축소와 언어환경의 악화 속에서 이를 보완할 부분은 교육시스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육과정과 괴리가 형성되고 나면 학교를 통한 보완은 매우 어려워진다.

(3) 생태환경의 상실, 놀이부재

또 하나의 주요한 문제는 발달의 생태공간, 놀이공간의 상실이다. 인간은 생물학적 진화와 문화발달의 역사를 통해 생태적 공간과 놀이활동 속에서 기초적 발달기능이 용이하게 형성되도록 발달해왔다. 특히 영유아기 시기 정서적 감응과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놀이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통해 사회적 공감기능의 기초와 감각기능, 행동지능, 초보적 사고의 토대를 형성한다.

그러나 현대의 도시적 생활양식은 환경과의 자연스런 상호작용 공간이 부재할 뿐 아니라 주변 사물과의 접촉까지 제한한다. 놀이활동도 사라지고 있으며 이는 발달의 기초기능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최근 ADHD 아동의 증가 등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

사회문화적 차원의 발달조건 악화는 비단 한국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며 인류차원의 역사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OECD에서도 ‘유아발달의 조건 변화’를 현대교육이 고려해야 할 주요한 문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선진국들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시스템, 복지시스템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영유아 돌봄과 교육의 공적 강화, 전생애적 관점에서 교육적 역할 재구성 요청됨

3) 전환기 문화역사의 시대적 요청

(1) 문화역사의 대전환기

- 정보화, 지구화로 대표되는 세계사적 변화흐름이 지속되고 있음.
 - 그런 가운데 미국 헤게모니 쇠퇴에 따른 세계질서 재편 흐름 부상 : 90년대가 동구 몰락에 따른 냉전해체가 주요한 흐름이었다면 2000년대는 미국 헤게모니 약화에 따른 질서재편이 세계정세의 주요 흐름.
 - 세계적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축적양식 쇠퇴에 따른 새로운 경제질서 모색 :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를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경제논리가 2008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후퇴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있는 시기.
- > 현대사회는 정보화, 글로벌화에 촉발된 세계적 차원의 역사문화적 전환기가 지속되고 있는 시기이며 신자유주의 질서 재편 시도가 인류에 상흔만 남긴 채 후퇴하면서 전환기의 새로운 모색과 이에너지가 양양되고 있는 상황

(2) 상생과 협력의 시대 요청

- 신자유주의에 의해 왜곡된 정보화, 지구화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함. 95년 교육개혁안은 정보화, 지구화를 ‘무한경쟁’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해석했으나 오히려 이는 지구적 차원의 상생과 협력을 요청하고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 재해석되어야 함.
- 정보화, 지구화는 새로운 차원의 생산력 발전과 네트워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평적 민주주의의 확대와 지구적 차원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임. 또한 그 속에서 나타나는 환경과 생태, 핵과 평화, 양극화의 지구적 심화 등의 문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전지구적 협력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것
- 또한 고도화된 생산력 발전과 지구적 네트워크 형성과 전지구적 문제들의 확대는 성장과 분배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재구성할 것을 요청함. 성장 후 분배라는 낙수이론은 실제(양극화심화,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와 광범한 국가개입 강화)와 이론(피케티의 신자본론) 모두에서 무너지고 있으며 성장지상주의를 멈추지 않을 경우 인류사회의 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 ‘성장보다 분배’ 흐름 형성되기 시작.
- 한편 ‘고령화’라는 인류사회의 새로운 조건도 매우 중요한 요소. 고령화 사회의 세계적 등장과 인구증가율의 감소는 성장지상주의 자체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역사적 상황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며, 사회 내 새로운 차원의 복지와 협력을 필요로 함. 또한 새로운 사회문화(인간적 삶과 자존을 드높이는 방향으로의) 형성을 요청함 => 지구적 협력, 세계 시민 개념 요청

* 경쟁교육의 극복 : 상생의 시대, 문화의 시대, 생태의 시대를 열어 가야

인간적 삶과 사회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토대의 하나로서 교육은 인간의 본질적 가치와 우리가 직면한 시대의 요구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상생의 시대, 문화의 시대, 생태의 시대를 열기 위해 교육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오직 경쟁과 시험으로 지식의 주입 속에 인간을 서열화하고, 정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면서 인간본연의 발달 가능성을 억제, 왜곡해 온 기존의 교육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고 삶을 영위할 주체를 형성할 수는 없다. 기존 교육은 오로지 출세와 경제적 필요의 도구가 되어 왔으며 인간 개개인과 공동체의 민주적 발달에 역행해 왔다.

새로운 시대는 인류사회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공동체적 삶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총체적 역량을 갖춘 인간 형성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인

류사회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공동체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자유롭고 풍부한 사회체제를 구축해가야 한다. 모든 인간이 자신의 발달을 최대한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한편 이러한 사회체제의 건설에 기여하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대한민국교육혁명, 2012)

(3) 문화사회의 창조 요청

- 문화사회 창조의 기본적 필요성 : 삶의 양식과 관점 변화 - 삶의 질 추구, ‘느린 사회론’ 등.
 - 문화는 지속가능 경제의 핵심 기반 : 광대한 소비 영역이자 일자리 영역
 - 교육은 문화사회의 중요한 부분이자 토대. 또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애교육으로 확장될 필요.
- => 전면적 인간발달 및 주체적, 창조적 인간 형성, 소통과 표현 역량 중요성 제고.

4)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는 세계적 흐름

- 교육시장화패러다임이 쇠퇴하고 ‘협력 교육’의 흐름 확산
-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 미래핵심역량 논의(교과지식 -> 발달기능)
- 21세기 새로운 교육트렌드(OECD 보고서) : 세계화의 역동성, 새로운 사회트렌드(고령화, 양극화, 개별화, 에너지/환경), 직업세계의 변화, 유년기의 변화, 유비쿼터스 시대 도래

=> 교육적, 역사적 정당성과 실현가능성의 전망을 지님.

3.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운동의 역사와 주요 원리의 형성

1)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운동의 역사

- 교육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운동은 혁신학교운동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다양한 경로로 진행되어 옴.

* 교육시스템 개편 운동

1992년 ‘교육대개혁안’(입시에서 인간화교육으로, 경쟁에서 평등교육으로)

을 시작으로 1995년, 1997년 교육대개혁안 수정, 보완 제출 -> 2001년 교육과정개편 운동 전개 -> 2003년 공교육개편안(공공성, 민주성 원리)-> 2007년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운동 출범 -> 2012 교육혁명공동행동 출범과 대한민국교육혁명 출간, 교육대개혁안

* 학교개혁운동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 -> 새로운학교 운동 -> 혁신학교운동

* 사회적 문제의식, 담론 확산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잖아요’ -> ‘학교는 죽었다’ -> ‘학벌없는 사회’ -> ‘나로부터 교육혁명’ -> ‘명왕성’, ‘혁신학교’ 시리즈, ‘교육혁명’ 시리즈, ‘협력’ 시리즈 등

* 정치적 지형 확대

2004년 민주노동당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와 서울대폐지론 -> 2008년 진보정당의 대학평준화 및 교육개편 공약과 민주당의 입시폐지 대선공약(정동영 후보) -> 2012년 국공립대공동학위제와 국가교육위원회 대선공약화(문재인 후보)

* 진보교육감의 교육실험 진행

2009년 최초의 진보교육감 김상곤 경기도에서 당선. 혁신학교 추진 -> 2010년 6개 지역 진보교육감 당선. 혁신학교 확산, 무상급식 추진. 학생인권조례 제정 -> 2014년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 당선으로 진보교육시대 도래

=> 멀리 보면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한국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실천과 사업을 다양한 차원에서 영역에서 전개해 옴. 이들 실천은 내용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총체적으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지형을 함께 일구어 온 것이라 할 수 있음.

=> 진보교육감의 압도적 당선으로 형성된 진보교육시대의 도래는 그 동안의 실천과 운동의 성과가 반영된 것이며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새로운 지형 형성을 의미.

2)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방향과 원리

- 그 동안의 과정 속에서 형성되어 온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은 각각의 영역에서 강조점과 세부 방향의 차이는 있지만 큰 흐름에서 다음의 공통적 지향과 원리를 형성해 옴

0 교육의 목적 : 총체적 인간발달(입시, 학력 -> 발달)

0 교육실천의 구성 원리 : 협력(경쟁 -> 협력)

0 교육의 성격 규정 : 공공성(서비스상품 -> 공적 권리)

0 교육주체의 관계 설정 : 참여와 민주주의(통제 -> 자율)

- 이러한 지향과 원리 하에 교육주체의 자율성과 학교자치, 발달에 입각한 교육과정 구성, 협력적 교수-학습, 질적 평가,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입시의 근본적 개혁, 생애발달과 교육 등을 추구함.

혁신학교를 통한 패러다임 전환

구패러다임	신패러다임
선발효과	학교효과
경쟁	협력
위로부터 아래로의 개혁	아래로부터의 개혁
고립	네트워크
사부담	공부담
진학	진로
분절성	총체성

(‘혁신학교성과분석 및 확산방안연구’, 2012)

교육패러다임의 전환

	경쟁중심 교육패러다임	발달지향 협력중심 교육패러다임
인간발달	수월성 추구 교육은 자본의 요구에 종속되어 이에 필요한 정도로만 인간능력 개발 추구(이러한 입장을 표현한 프레임은 과잉교육, 과소교육, 학력인플레 등)	발달은 교육의 중심문제. 발달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이며 전면적 성격을 지니며 교육은 이를 추구해야 함
주요 기제	경쟁	협력
교육과정 구성 원리	지식의 위계 (학문중심) 경험의 제공 (경험중심)	고등정신기능의 형성
평가관	양적 평가(측정관) 실제적 발달 수준 확인 비교 및 서열화(변별력 중시)	질적 평가 학습자의 발달에 대한 이해가 목적. 발달가능성 중시. 교수학습과정의 일부.

(교육혁명공동행동연구위원회 ‘대한민국교육혁명’, 2012)

4. 진보교육시대의 도래와 교육패러다임 변화, 혁신학교 운동

1) 진보교육시대와 교육패러다임 전환운동의 공세적 전개

- 6/4 선거에 의한 진보교육감의 압도적 당선은 “그 동안 각축을 벌여온 신자유주의교육패러다임과 진보적 교육패러다임과의 공방에서 균형추가 진보적 교육쪽으로 옮겨졌음을 의미”(김학한, ‘진보교육시대와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2014)
- 1995년 이래 한국교육은 교육시장화패러다임에 의해 주도되어 왔지만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이 제출되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부터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서로 상반된 교육패러다임이 각축을 벌여온 시기였다고 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진보적 교육패러다임은 내용적, 운동적, 정치적으로 성장, 발전해 왔으며 또한 혁신학교운동을 통해 구체적 실천으로 승화시켜 온 반면 시장화패러다임은 불평등 심화, 사교육 고통확대, 학교폭력과 수업탈주 현상 등 온갖 폐해를 낳은 채, 사회적 설득력을 상실해 온 과정임. 2014년 6/4 교육감선거는 교육시장화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진보적 교육패러다임의 정치적 승리라고 할 수 있음.
- 6/4 선거는 그 동안의 다양한 노력을 통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운동의 진전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여기에 세월호 참사는 입시경쟁교육에 대한 근본적 성찰의 계기가 되었고, 입시경쟁교육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로 연결된 것임. 따라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운동을 더욱 공세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정당성과 정치적 조건이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음.

2) 진보교육시대의 시기적 성격

- 진보교육시대는 박근혜정권이라는 수구/시장주의적 성격의 정권과 거의 시기를 같이함
- 이는 두 가지를 의미. 하나는 여전히 기존/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립과 각축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성패가 사회전체 패러다임(신자유주의나/민주화와 복지나) 및 정권교체 여부와 연결되기 쉽다는 것.
- 따라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운동은 교육 분야에서의 각축에서 전진해 나가는 한편 사회전체의 변화에 대한 전망과도 결합해 나가야 함. 교육패러다임 전망과 관련 이 시기 과제는 크게 3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됨.

첫째, 기존 패러다임의 잘못된 정책과 내용(자사고, 교육과정, 교원평가와 성과급 등)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실천(혁신학교운동의 확산과 내실화, 일반학교의 학교혁신 운동, 교육과정과 평가 자율성 획득, 학교자치 실현, 가치교육 강화 등)을 구체화, 확산하여 교육현장에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대세화함.

둘째, 사회적 담론 지형에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우위를 확대하면서 확고히 해 나감.(발달과 협력 중심 교육관, 복지와 권리로서의 교육, 대학서열화/입시폐지 등)

셋째,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등의 일정 속에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에 입각한 정치적 실천(교육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등)과 정책공약화를 확고히 진행하여 교육체제 전반의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

3)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창출과 확산으로서 시즌2 혁신학교운동

-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운동으로서 혁신학교운동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님. 혁신학교운동의 핵심적 의의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구체화, 실재화’한다는 것임. 혁신학교를 통해 사람들이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단지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재로서 보고, 경험하면서 광범한 지지가 확산되고 근본적 개혁에 대한 열망을 자극받게 된 것임. 혁신학교운동은 진보교육시대 창출의 가장 중요한 동인 중의 하나였음.

- 그런 점에서 시즌1 혁신학교운동은 패러다임 운동으로서 성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음. 설사 성공적인 혁신학교가 소수였거나 일반학교의 학교혁신으로 잘 연결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패러다임 간 각축에서 그 역할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것임.

- 시즌2에서는 다음의 사항과 조건들을 고려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임.

0 혁신학교가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첨병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수직적, 수평적 확산을 통해 대세화할 필요가 있음. 이미 사회적, 정치적 조건은 일정하게 확보. 이와 관련 유치원과 대학으로의 확산과 혁신지구 사업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0 혁신학교의 확산만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대세화와 현실화의 중요한 고리 중 하나는 일반학교로의 실천과 내용 확산임. 그렇게 될 때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이 새로운 차원에서 대세화되고 확고한 기반을 형성하게 될 것임. 이를 위해선 학교혁신운동이 좀 더 체계적, 조직적으로 추진되어

야 할 것이며 지역단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학교혁신운동과 지회 역할 강화, 교육청과의 교섭력 강화 필요)

0 패러다임 각축 과정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기득권세력의 공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 중의 핵심이 이른바 학력논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공세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함. 이를 넘어설 때 새로운 패러다임의 진정한 우위가 확보될 것임.

0 혁신학교운동의 확산과 발전과정에서 교육과정, 평가권, 입시,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 제도적 한계의 문제가 더욱 부각될 것임. 따라서 제도개선투쟁과의 상승적 결합이 요청됨.

0 시·지은2는 단지 교육적 지향을 ‘구체화’하여 보이고, 경험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이 구현된 교육시스템을 채울 수 있는 내용과 방안을 ‘예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또한 그럴 수 있다고 판단됨. 이를 위해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더욱 체계적이고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는 교육철학/교육과정/교수-학습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5. 혁신학교를 둘러싼 패러다임 각축의 핵심 의제 : 학력 논쟁

‘혁신학교 다니면 학력 저하?’(EBS, ‘기획취재, 혁신학교를 가다 1편, 2014.07.08)

- 혁신학교를 둘러싼 이른바 ‘학력논쟁’이 부상하고 있음. 2014년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혁신학교에 대한 보수세력의 공격이 2012~2013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대 논쟁으로 형성된 것. 혁신학교에 대한 여타의 공격 지점들이 설득력이 부족하고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반면 학력논쟁은 상호 간의 ‘근거’와 ‘곤란’을 동반한 쟁점으로 부상하게 됨.

- 혁신학교 학력논쟁이 본격적으로 부상한 2013년 하반기 거의 비슷한 시기 언론에는 정 반대의 기사들이 등장

“혁신학교 학력향상도 우뚝”(대전북신문, 2013. 9.23)

“광주 혁신학교 성적 '괄목상대'..상승세 지속 ”(뉴시스, 2013.12.15)

“교육개발원 "서울 혁신학교, 학력향상도 낮아" ”(뉴시스, 2013.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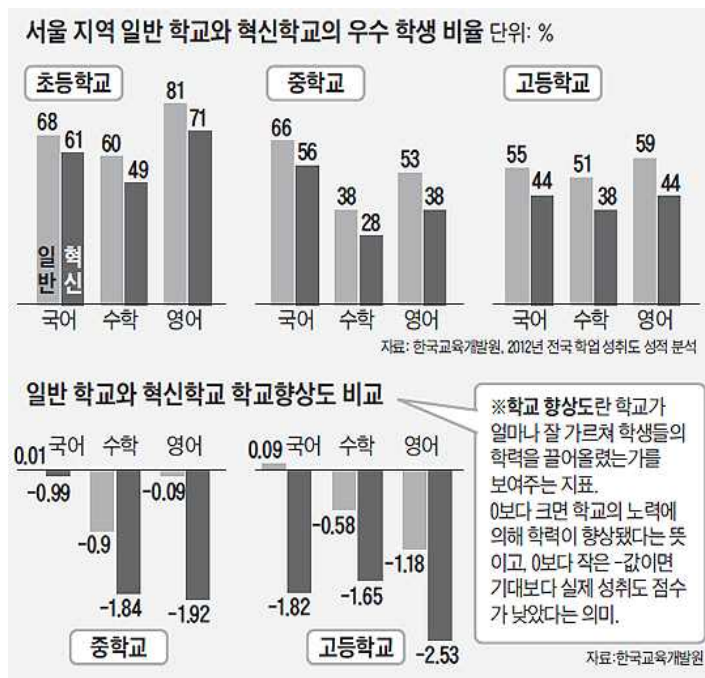
“年1억 더 지원받는 혁신학교, 학력은 점점 떨어져”(조선일보, 2013.11.11)

- 2014 교육감선거에서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으로 정치적으로 승리했음에도 학력논쟁은 지속되면서 패러다임 전쟁의 핵심지점으로 부상 중

주목받는 혁신학교.."학습만족" vs "학력저하" 2014.06.15 | SBS

혁신학교, 토론식수업 좋지만 학력저하 '심각' 2014.06.09 | 매일경제

- 학력논쟁과 관련 단순한 학력 비교에는 충분한 대응력이 있음. 예컨대 서울지역 혁신고교와 강남지역 일반고의 대입성적 비교는 학교효과가 아닌 선발효과임.
- 그러나 일정한 논란이 되는 지점이 있는 바, 이른바 ‘학교향상도’²⁾라는 것임. 혁신학교 반대론자들은 학교향상도 저하를 나름의 주요한 근거로 들면서 공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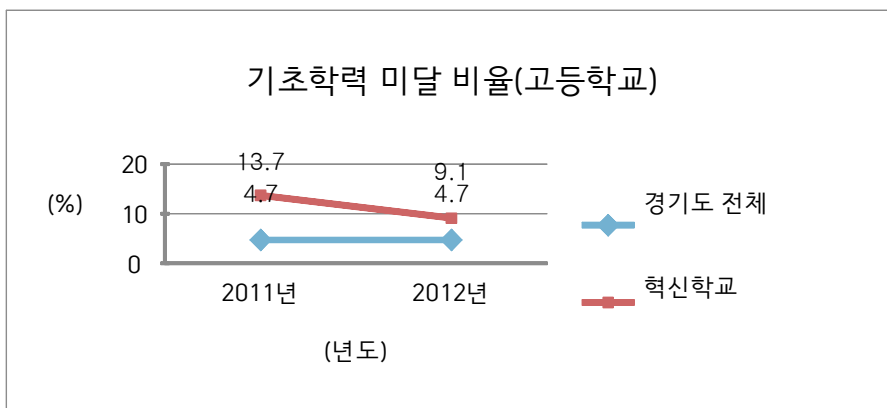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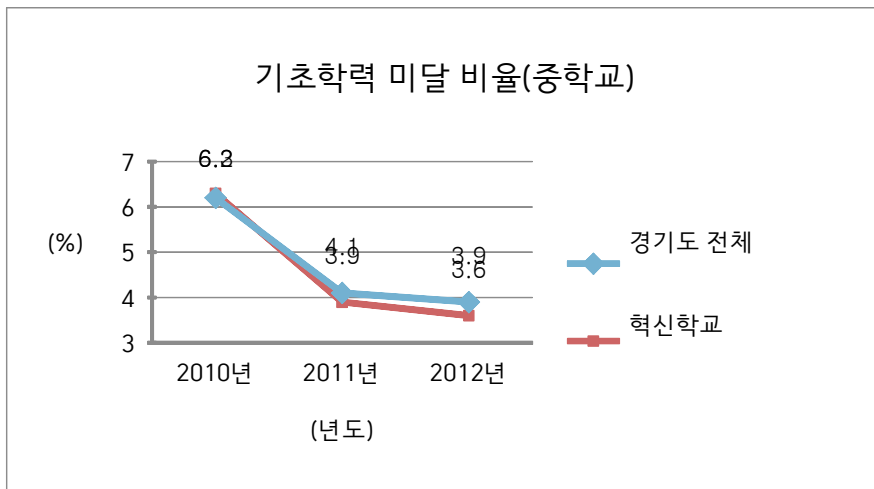
(‘연1억 더 지원받는 혁신학교, 학력은 점점 떨어져’ 조선일보, 2013.11.12)

2) 학교 향상도란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효과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저학년 때 비슷한 성적의 학생들이 학교급이 바뀐 이후 성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지표.

“학생의 학력 향상에 학교가 기여한 정도를 나타내는 ‘학교 향상도’ 평가에서 광주지역 혁신학교들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광주일보가 학교알리미 사이트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혁신학교들의 교과별 향상도는 대체로 마이너스(-)를 보였다.....”(‘광주 혁신학교 간 학생들 성적 떨어졌다’ 광주일보, 2013.12.17)

- 이 같은 공격을 통해 학력저하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상위권대학을 목표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음.

-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 ‘기초학력미달률 감소’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오히려 학력이 증진되고 있다고 반격.



(‘경기혁신교육백서’, 2013)

“2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2년 전체 초등 혁신학교 32개교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71.8%인 23개 학교가 제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달학교는 9개교에 달하고 있지만 이는 2010년 19개교에서 10개가 감소한 것으로, 대부분의 초등 혁신학교가 농어촌지역인 것을 감안하면 개선도가 눈에 띈 수치라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와 함께 혁신 중학교 9개 학교의 국가수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10년 미달학생비율이 10.61%였지만 2012년 6.08%로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 더욱이 혁신 중학교의 경우 대부분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혁신학교를 통해 학교문화가 새로워지면서 학생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혁신학교 학력향상도 우뚝’ 새전북신문, 2013. 9.23)

- 불붙기 시작한 학력논쟁에 대해 우리는 보다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그랬을 때 혁신학교운동의 새로운 전진, 진보적 교육패러다임의 대세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 ‘기초학력 미달비율 감소’와 ‘학교향상도 저하’를 각각 근거로 내세우면서 진행되고 있는 학력논쟁 속에서 다음의 몇 가지 문제들이 제기된다.

첫째, 상반되는 두 근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둘째, 혁신학교는 실제로 학력을 증진하는가? 아니면 저하되는 것인가?

셋째, 적어도 상위권대학을 목표로하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 불만이 실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전개할 것인가?

* 사실 판단과 관련 : 혁신학교의 발달적 성과가 확인되다.

- 우선 두 지표의 자료 근거가 되는 소위 일제고사(학업성취도 평가)는 혁신학교의 ‘학력’을 제대로 진단할 수 없는 도구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토론과 발표 등 협력적 교수-학습과 다양한 활동을 기조로 하는 혁신학교교육을 통한 (학력) 발달은 수년간에 걸친 일련의 지속적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임. 따라서 단기적인 시험성적 향상으로 바로 나타나지 않으며 또한 발달기능을 ‘지필고사’로 올바르게 측정할 수 없음. 뿐만 아니라 시험위주 교육을 하는 학교에 비해 ‘지필시험’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발달적 성취가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미달비율 감소’라는 제한적 지표로 ‘학습부

진아 감소'라는 혁신학교의 발달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음. '기초학력 미달 비율 감소'는 지역에 상관없이 일관된 데이터에 의해 분명한 경향으로 나타남. 교육적 원리로 볼 때 이 같은 현상은 당연한 것으로 해석됨.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혁신학교에서의 교육실천은 그 동안 배움으로부터 멀어진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을 확대하고, 그 밖의 학생들의 발달에도 기존 패러다임에 비해 보다 효과적임. 따라서 시험을 목표로 한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그 결과로서 학력미달학생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임. 이는 마치 핀란드교육이 시험 위주 학습을 전혀 하지 않음에도 피사에서 높은 성취도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서 확인된 지표보다 실제로는 학습부진아 감소가 더 많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혁신학교를 공격하는 쪽에서는 '학교향상도'를 근거로 전체적 학력저하를 주장. 그러나 여기에는 우선 '데이터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인이나 다른 매개변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백병부, 2013) 데이터의 일관성도 결여됨.

“광주시교육청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빛고을혁신학교의 성적 향상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교육부 정보공시 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고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진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광주 지역 혁신중학교 3년차 2곳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혁신학교 3년차 중학교의 성적 향상률은 전국과 광주 일반 학교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상승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광주 혁신학교 성적 '괄목상대'..상승세 지속’, 뉴시스, 2013.12.15.)

-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제고사가 혁신학교의 발달적 성취를 제대로 측정하는 수단일 수 없다는 것.

- 일제고사로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지만 교육적 원리와 수업 효능감 및 만족도 등 여타의 지표로 볼 때 혁신학교의 교육프로그램과 교수-학습 풍토는 학습부진아 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발달적 성취에 성과적임을 유추할 수 있음. 이는 '미래핵심역량'³⁾ 등 새로운 교육 지표로

3)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자기표현력, 대인 관계력, 더불어 살기 위한 교육, 협력적 교우관계, 학생이해, 교사와 학생관계 등을 지표로 설정하여 혁신학교의 학교효과성이 유의하게 나타남을 분석.

혁신학교 성과를 진단한 전북교육정책연구소의 ‘2013년 혁신학교의 학교효과성 분석’에서 나타나고 있음. 혁신학교의 발달적 성취를 올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더 체계적인 지표 및 도구 개발 필요.

* ‘학력’ 개념의 전환 필요

- 발달이라는 교육적 견지에서 혁신학교가 학력 증진에 더욱 효과적임은 분명한 사실. 그러나 학력논쟁에는 ‘학력’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근본적 패러다임의 차이가 개재되어 있음. 학력을 입시와 교과성적으로만 보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는 발달적 성취가 아닌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학력이 저하되었다고 하는 것임. 그러한 관점이 비교육적이고 비본질적임에도 잘못된 오랜 관행과 교육문화에 익숙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주는 것임.
- 따라서 ‘학력’에 대한 재개념화가 요청됨. 이와 관련 최근 김승환 교육감의 경우 ‘참배움’ 개념을 제시했고 전북교육정책연구소의 미래핵심역량에 입각한 새로운 평가지표 도입도 그러한 시도라 할 수 있음.
- 학력 재개념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입시와 평가제도의 현실 속에서 그 동안 주변화되어 옴. 이제 본격화할 필요가 있음. 그 동안 혁신학교를 둘러싼 공방에서 거의 대부분 우위에 서왔음. 학력 재개념화는 학교와 교육의 목적과 연관된 근본지점이자 최종지점으로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관건이 될 것임.
- ‘미래핵심역량’ 등 발달기능 중심의 학력 재개념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이미 국내에도 상당정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 충분한 근거와 승산이 있음.

* 입시의 현실적 딜레마와 대응전략

- 학력에 대한 재개념화의 노력과 별도로 입시, 특히 상위권대학 진학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압력은 혁신학교운동이 맞게 되는 가장 현실적 난제로서 현실적 고려가 필요함.
- ‘입시에서 발달로’ 학력의 재개념화에 동의하는 사람들조차 학벌사회의 엄연한 현실에서 효과적인 입시교육을 요구하게 됨. 입시는 의식의 문제 이전에 실제적 이해와 욕망의 문제이기 때문. 고교는 물론이고 입시 문제는 혁신학교운동 전체의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해 그 동안 혁신학교운동 과정에서 고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전략을 모색해 옴.

0 두 마리 토끼론 :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실천과 입시성적 성과 모두를 성취할 수 있다는 대응전략임. 올바른 발달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결코 입시성적에서도 뒤지지 않으며 더 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초등에서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음. 그러나 중학교부터는 일정한 불만과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우며 막상 입시 압력이 가중되는 고교에서는 사실상 선발효과가 좌우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과제임.

0 틈새 전략 : 일부 혁신고등학교에서 현재 실제로 구사하는 전략. 혁신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역량을 기르고 ‘입학사정관제’ 등의 입시전형에서 스펙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임. 그러나 틈새 전략은 기본적 한계를 지님. 우선, 스펙이 효과적인 전략이 되는 경우 다른 일반 학교에도 확산되면서 혁신학교만의 효과가 없어지며 본래 활동의 의의도 감소됨. 예컨대 혁신고등학교에서 형성된 다양한 토론동아리가 스펙으로 인정되면서 다른 일반학교에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함. 또한, 기본적으로 틈새전략으로는 상위권대학을 겨냥한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움. 결국 공교육 전반을 바꾸기에는 한계임.

0 대안학교형 전략 : 입시를 목표로 하는 일반고보다 대안학교나 직업학교 유형의 혁신고교를 지향하는 전략. 일반고보다 입시압력에서 완화될 수 있으나 역시 주변적 한계를 지님.

- 결국 기존의 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음. 혁신학교운동을 추진해 온 진보교육감들도 권한의 밖임에도 입시개혁 과제 제출.

0 김상곤 교육감 : 대학서열화와 대입 체제의 근본적 개편 필요(‘경기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통해서 본 공교육활성화 방안’ 2014)

0 2014 교육감선거에서의 공통공약 중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방안’ 제출

* 어떻게 할 것인가?

- 문제는 입시제도의 근본적 개혁은 적어도 수년 이후에나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 당장은 현재의 입시제도 틀 하에서 혁신학교운동을 확대, 발전시키고 학력논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

- 구조적 딜레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학력 재개념화’를 위한 담론운동과 ‘입시개혁’ 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틈새전략을 결합할 수밖에 없을 것임.

- 한편 근본적 입시 개혁 이전 우선적으로 ‘내신 중심 전형 확대’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내신중심 전형이 확대될 경우 혁신 고교의 특색을 살리고 일반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정상적 학교교육이 입시에 연결됨으로써 혁신 고교는 ‘행복한 학교’와 ‘입시’를 어느 정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임.
- 교육과정 재구성과 평가 자율성 획득 운동의 전개가 필요함. 교육과정 문제와 평가권 획득의 문제는 학력 재개념화와 직접적 연관. 발달기능 중심으로 국가수준 총론에서부터 지역, 학교, 학년, 교과, 교사별 교육과정 등 각 수준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운동 전개.

‘혁신학교와 공교육 패러다임 변화 토론회’ 토론문

강민정(북서울중학교 교사)

6.4 지방선거 이후 교육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 변화로 13개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혁신을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 1기 혁신학교들의 성과에 힘입어 교육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혁신학교 확대로 표현되고 있다. 이제 혁신학교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한 몇 가지 문제들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1. 혁신학교의 양적 확대인가? 혁신학교 성과 일반화인가?

이번 6.4 선거 과정을 통해 혁신학교는 이미 교육혁신의 아이콘이 되었고, 혁신학교는 국민 대중들에게 자사고나 특목고처럼 하나의 학교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13개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혁신학교 확대 정책을 발표하였다. 혁신학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1기 진보교육감 지역과 새롭게 첫 진보교육감 시대가 시작되는 지역과는 조금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1기 혁신학교 시기에 “혁신학교의 양적확대인가? 아니면 질적 관리인가?”하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논의는 어느 정도 후자에 수렴되는 듯 하였으나 문용린교육감 시기를 맞이하여 혁신학교 지키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더 이상 진전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논의는 교육혁신 운동에서 혁신학교가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올해부터 8개 지역에서 새롭게 혁신학교 정책을 시작하게 되고, 이는 사실

상 혁신학교 정책의 전국적 확대를 의미한다. 4년~5년 6개월 앞선 경험을 가진 선험자로서 1기 혁신학교들은 이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제시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교육운동에서 차지하는 혁신학교의 의의 및 역할을 밝히는 것은 새롭게 첫 진보교육감 시대를 여는 8개 지역 혁신학교 정책의 방향 뿐 아니라, 2기 혁신학교 시기를 맞게 되는 기존 6개 지역의 혁신학교 정책 방향에 중요한 가늠자를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혁신학교는 학교혁신을 위한 Pilot school이다. Pilot school은 다양한 학교혁신 실험들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여 그 성과를 다른 학교에 일반화하는 기지 역할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과감한 실험 정신과 사명감이 그 구성원들에게 요구된다. 가산점을 둘러싼 논란이 혁신학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가장 잘 드러내 주고 있다. 또한 200개, 혹은 300개 혁신학교 지정과 같이 진보교육감들의 혁신학교에 대한 양적 확대 정책 역시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드러내 주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솔직히 우리 안에는 혁신학교에 대한 Pilot school론과 하나의 새로운 학교유형론이 혼재되어 있다. 가산점 반대와 질적 관리를 강조하는 입장은 전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Pilot school론은 혁신학교 자체의 확대가 아니라 혁신학교의 성과를 일반학교에 확대하고 적용하여 일반화하는 두 단계를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적 확대는 엄격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1기 혁신학교를 통해 신설학교의 혁신학교 운영 모델과 일반학교의 혁신학교 전환 모델의 경험이 축적되었다. 그리고 혁신학교의 성과를 통해 교원업무정상화 정책이 확산되었고, 민주적 학교운영의 중요성은 민주적 리더십과 교사회의 실질적 의결기구화의 위력을 입증하였다. 이렇게 혁신학교는 다양한 성과들을 정책으로 전환하여 전체 일반학교에 필요한 혁신확대의 기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혁신학교가 이렇게 규정될 때, 혁신학교를 둘러싼 인적, 물적 지원정책은 특혜시비나 일반적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그 의미들이 보다 명확하게 성격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1기 혁신학교 지역들은 기왕의 혁신학교들에 대한 질적 관리와 동시에 그 성과들을 일반학교의 혁신정책으로 확산 적용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새롭게 진보교육감 시대를 맞는 8개 지역의 경우에는 1기 혁신학교 지역들이 겪었던 혼란과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보다 효율적인 혁신학교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혁신학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혁신학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혁신, 교육혁신의 열망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혁신학교는 또 다른 정치적 대립의 중심에 서게 되고, 그 역할과 의의가 퇴색되는 결과에 봉착하게 될 지도 모른다.

2. 혁신학교는 단위 학교만의 혁신인가? 학교 울타리를 넘어서 현실에 뿌리를 둔 제도 개선 투쟁과 교육혁신 운동의 지평을 넓히는 견인차인가?

춘지 거부로 전 국민의 지지를 한 몸에 받으며 시작되었던 전교조는 언제부터인가 국민들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교육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 세력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전교조의 활동이 주로 학교현장에서의 혁신과 개혁과는 일정하게 동떨어진 제도개혁 운동에 집중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이 교육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제도 개선안들을 제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성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교육 현실은 더욱 후퇴하고 악화일로에 처해 있다. 이 양자의 공통점은 모두 교육현장에 굳건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것에 있다.

전교조의 참실 운동이 현장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데도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한 것은 기존의 참실 운동이 학교 단위의 혁신 운동이 아니라 교사 개인이나 교실 차원의 혁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혁신학교는 교육정책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버려진 학교인 남한산초등학교의 학교혁신 경험에서 출발하였다. 역설적이게도 진보교육감이 들어서면서 교육정책당국의 통제와 감독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여건을 보장받게 되면서 혁신학교야말로 비로소 학교단위의 전면적인 개혁과 혁신이라는 새로운 경험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경험은 수업과 생활교육, 교사회와 민주적 리더십, 학생자치, 진

로교육 등과 관련한 학교 안에서의 혁신 뿐 아니라, 교육과정의 문제, 학교 업무정상화와 교육청 혁신, 입시제도 개선, 지역과의 협력교육 등과 같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선 보다 거시적인 문제들에 대한 실천적 문제의식을 갖게 만들었다. 이런 실천적 경험에 근거한 다양한 형태의 제도개선요구는 현실착근의 강력한 힘에 의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서울과 경기의 혁신교육지구 사업 역시 지역과의 협력교육을 다양하게 시도한 혁신학교 경험이 발전한 결과이며 최근에는 ‘교육도시 서울플랜’으로까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의 영역을 확장하고 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가 널리 공유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이유로 일반 국민들에게는 물론 교육운동 진영 내에서조차 혁신학교를 단위학교 안에 국한된 혁신운동으로 협소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학교야말로 모든 교육정책과 제도들이 현실적 힘으로 관철되고 실현되는 곳이다. 따라서 역으로 학교의 모든 문제들이 실은 모든 교육정책 및 교육제도와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혁신학교에서 혁신해야 할 문제를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그것은 결국 교육철학, 교육정책, 교육제도와 같은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문제들과 만나게 만든다.

혁신학교에서의 경험들이 모든 교육혁신 과제들의 해결 단초를 제시해 주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그 어떤 경험보다도 유의미하고 폭넓은 교육혁신의 방법론과 그 해법에 관련된 단초들을 얻을 수 있음은 분명한 일이다. 그것은 짧게는 4년, 길게는 5년 6개월의 혁신학교 경험들이 현실에서 제기하고 진전시킨 성과들에서 입증되고 있는 바다.

따라서 교육혁신을 연구하는 연구자나 교육정책 입안자, 교육혁신운동가들은 우리나라 교육혁신의 실천적 과제와 문제의식 및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혁신학교의 경험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혁신학교는 우리나라 교육운동의 역사에서 단지 학교 울타리 안에 국한된 단위 학교 혁신을 넘어선 그 이상의 해법과 전망을 찾는 데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 될 것이다.

소통하는 학부모회, 혁신학교의 든든한 후원자

박인숙(서울형혁신학교 학부모네트워크)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봉구에 살고 있으며, 중학2학년과 초등5학년인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두 아이는 모두 혁신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혁신학교에 대해 3년여를 공부해 서울형 혁신학교를 찾아 노원구에서 도봉구로 이사했고, 제 두 아이는 1년 반의 시간을 혁신학교에서 보내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몸담고 있는 혁신학교학부모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혁학넷을 알게 된 건 작년에 북서울중학교의 학부모임원이 되어 혁신부장선생님을 통해 소개받으면서부터입니다.

혁신교육과 학부모에 관심이 많은 저는 북서울중학교 학부모임원들과 함께 혁신교육포럼에 참여한 이후로 혁학넷총회에 참석하고, 혁학넷지역모임에 나갔습니다.

2013년 혁학넷에서는 문교육감의 혁신학교에 대한 탄압에 저항하기 위한 서명지를 학부모님들께 돌리기도하고, 일인침묵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서울의 변두리지역에 흩어져있는, 초중고의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혁신학부모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부족하단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2014년 6.4 교육감선거를 준비하면서 매일 진화하는 혁신학부모의 추진력에 사실은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우리네를 하나로 모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확인된 혁신학부모의 힘을, 일전을 무사히 치러낸 이후라고 그냥 흘러지도록 두어선 안되겠다는 생각을 해

전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년 전, 제가 북서울중학교의 첫 학부모모임의 절 소개하는 자리에서 혁신 학교를 찾아 이사왔다고 했을 때 절 신기한 듯 쳐다보던 다른 학부모님들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은 혁신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으면서도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와 뭐가 다르단 건지 오히려 제게 물어오셨고, 예부터 말 많고 탈 많은 엄마들의 치맛바람과 혁신학부모로서의 학교에 대한 관심을 구분하지 못하셨습니다.

올해에도 신입생과 함께 일반초등학교출신의 학부모님들이 북서울중학교로 오셨고, 입학식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역시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십니다.

단지,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으로 인해 거칠었던 학교에 대한 평가 학생들이 변했다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뿐입니다.

전 학부모님들께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중학교아이들이 웃으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정작 어머니들은 알지 못하기에 불안해합니다.

극한의 경쟁상황으로 몰아넣어야 할 아이를 마냥 놀리고 있는건 아닌지?

아이들의 행복해하는 웃음을 그냥 보고만 있어도 되는 건지?

모든 학부모님들께 왜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를 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혁신학교와 일반학교는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인지?

부모의 경제형편에 따라 아이를 차별교육시키는 것이 왜 그르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해 납득할만한 학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잘 알지못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미워하며, 두려워합니다.

중학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학부모연수니, 학부모아카데미니 하는 이름으로 많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집니다만, 여기에서 정작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제게는, 제가 참여한 학부모연수중 괜찮은 강의였다 생각한 교육이 1/3이 채 안되는듯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부모님들이 “시간이 아까워~” 라는 반응이 대부분 이고, 이는 결국 학부모연수에 대한 저조한 참여로 이어집니다..

횃수에 치중한 교육이 아닌, 하나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조언을 하자면, 학부모님들은 경험담이 섞인 강연에 몰입하십니다!

교육감님은 혁신학교확대를 주장하십니다.

선생님을, 학생을 교육하는 것처럼 학부모님 교육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지만, 혁신학교학부모님은 두 부류로 나뉘어있습니다.

전통적인 주입식교육을 옹호하는 학부모님과 새로운 교육방식을 옹호하는 학부모님은 정말 다릅니다! 이 둘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어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움직인다던가요?

교육열이 세계1위라는 우리나라 학부모의 격렬한 반대가 있다면..

이는 넘기엔 매우 힘든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교육시키십시오!

학부모님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나라교육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반에 걸쳐 학부모회활동을 하면서, 혁학넷 활동을 하면서, 각 학교 학부모회의 마인드가 중요하단걸 느낍니다.

폐쇄적인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부모회는 함께 전화 한통화 나누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분들은 다른 학부모님들에게 제 의견을 전달하는것조차 마다하더군요..

학부모님들이 말랑해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있도록 실력있는 학부모교육 드림팀을 구성해 좋은 생각을 , 변화를 전파시켜주시십시오!

4년의 기간동안 더 많은 학부모님들을 혁신미래교육의 든든한 아군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혁신교육과 공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일들

신동하(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

1. 공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혁신교육 2기의 과제

지난 6.4 교육자치 선거를 통해 전국의 13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혁신교육 2기가 열렸다. 이는 지난 2010년 6개 시도교육청에서 출발한 혁신교육이 이제는 전국화되어 교육계의 주류로 발돋움 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상징한다. 따라서 혁신교육 2기는 1기 때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명확한 비전과 디테일한 실천 전략을 통해 기존의 낡은 교육 패러다임을 명실상부하게 새롭게 전환시키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 그것을 탄실히 정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게 되었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지난 혁신교육 1기 때의 혁신교육은 교육 내용은 혁신적일지 모르나 절차나 작동은 옛 시스템에 바탕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⁴⁾ 예컨대 혁신을 수행할 준비된 좋은 사람을 찾는 데는 최선을 다했으나 준비된 좋은 사람을 뽑거나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개편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물론 이는 혁신교육에 적대적인 환경에 둘러싸여 있던 객관적 요인, 아직 혁신교육이 충분히 무르익지 못한 주관적 요인으로 인한 통과의례적인 한계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 의존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성 면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의 집권기 10년 동안, 일부 팬클럽 사람들이 공직에 나가 어느정도 참신한 기풍을 가져왔으나 시스템까지 변화시키지는 못한 까닭에 보수정부 출범 이후 올드보이들의 재등장과 더불어 바로 구질서로 회귀했던 점, 그리고 현 집권 여당이 야당 시절 정략적 판단에 입각해 까다롭게 만든 인사청문회 검증 시스템이 문창

4)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 100년의 약속 전문가 평가보고서』 (2014) 30-31쪽.

극이나 김명수 같은 부적격 인사들을 걸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따라서 혁신교육 2기 때의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과제는 지속 가능한 혁신교육을 위한 인사 및 조직 시스템 등의 제도화이다.

제도적 교육 혁신에 있어서의 가장 급선무는 신규 교원 임용과 기존 교원의 전직제도 같은 인사제도에 대한 혁신이다. 외견상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인사 시스템들은 실상 같은 궤-지식, 점수-하에서 작동되고 있는 것들이다. 이 궤를 밟는 사람들은 당연히 혁신적이기보다는 기존의 행태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되도록 유도된다. 따라서 혁신교육을 펼치고자 한다면 그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인사 시스템 개편은 필수이다. 물론 이는 진영논리에 입각한 자의적 위인설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공정함과 투명함을 유지하되 현재 어느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미래형 교육, 그리고 단 1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의 기준 자체를 혁신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예컨대 1차 지필시험 비중 약화 및 2차 면접 및 토론 강화),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예컨대 출제 및 전형위원의 다양화) 전형 방식을 모색하고 개편하는 한편으로, 그 간 소수 기득권을 유지시켜 오던 각종 진입 장벽(예컨대 각종 가산점이나 전문직 응시 자격요건 완화)을 혁파해야 한다. 이런 혁신이 수행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다양하게 구성되어 모든 학생을 품을 수 있는 교사(기존의 부잣집 모범생 일변도와 대비),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현장을 지원하는 전문직(기존의 군림하고 통제하는 것과 대비)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교육계 인사 모순의 핵심인 교장 승진제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해야만 한다. 물론 이는 국가 차원의 훈령(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규정되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장 중임제 강화 외에는 손댈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CEO 혹은 관료적 리더십⁵⁾이 아닌 교육적

5) 책임자이자 의사결정자로서의 학교장의 전문성은 수업을 하는 교사의 전문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관점이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사조와도 부합한다는 이 주장에 의하면 일반 교원의 승진과 교장의 임용을 하나로 묶은 현행 교장 임용제도는 문제가 있는 것이며 교장직은 보직이 아닌 자격이므로 종신제가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임기제로 인해 정년퇴임 시기를 맞추기 위한 교장의 고령화, 원로교사 발생시 전문성의 문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박상완, 「교육행정전문직으로서 교장직 정립을 위한 교장임용제도 개혁」, 『한국교원교육

리더십⁶⁾에 바탕을 둔 새로운 관리자상(예컨대 수업하는 교장) 모색을 통해 ‘수업하기 싫어 승진한다’는 왜곡된 승진열이 발생할 여지를 차단하고,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교장 승진제 혁신안의 내용을 실천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또한 방만한 교육청의 권한과 기능과 조직을 정비하는 일도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중첩된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청의 각 부서들을 통폐합하고 무질서하게 할거하며 자리 유지를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벌이는 업무 풍토를 일신해야 한다.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 역시 지역 시민사회와의 협조 속에서 명실상부하게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예컨대 방과후학교 총괄, 연합 직업반 개설 등) 개편해야 하며(교육장 공모제와 병행 실시), 현재 그리 활용률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각종 직속 기관들 역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한가하게 ‘결재만 하는’ 사람을 없애고 잉여 인력을 학교로 보내어 일손이 달리는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⁷⁾ 같은 맥락에서 학교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학 본부’에 준하는 ‘학교 본부’⁸⁾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교무부와 총무부(관행적으로 부르는 ‘행정실’이라는 명칭은 법적 근거가 없는 용어)⁹⁾를 두는 형태로 일선 학교 조직 역시 개편해야 한다.

동시에 학교의 조직 풍토를 민주화하고 집단지성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교무회의 규정’을 제정·하달하여 교무회의가 ‘학사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학교운영’을 주관하는 학교운영위원회와의 충돌 방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협의회 시간을 포함하는 형태로 표준 수업

연구』 제21권 제1호 (2004)

6) 교장을 ‘head teacher’로 보는 관점이다. 이중 대표적인 것은 2001년 전교조가 대의원대회에서 핵심사업으로 채택한 바 있는 교장선출보직제론이다. 참여와 자치에 기반을 둔 시민사회의 발달이라는 시대적 변화와도 조응한다는 이 주장에 의하면 교장은 한 사람의 훌륭한 교육자이자 학교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의 지위를 갖되, 다만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특별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따라서 임기동안 교장 보직을 수행한 뒤 다시 평교사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탈피해 민주적 협치에 바탕을 둔 학교의 교육적 본질 극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 안승문,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서강대, 2004)

7) 우리나라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OECD 국가 중 최고로 많은 상황이고, 그에 비해 교육지원인력 수는 OECD 국가 중 최고로 적은 실정이다.

8)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 100년의 약속 전문가 평가보고서』(2014) 36쪽.

9) 예컨대 서울 소재 한 사립 대학교의 총무부 업무 소관은 다음과 같다(강조는 필자). 현재는 행정실의 업무는 행정실이 분화된 시점 상황을 기준으로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고, 그것이 교육과 무관한 경우에도 각종 신규 업무(예컨대 전산화, 복지 등)가 발생할 때마다 교무실로 전가되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 참교육연구소, 『교원업무정상화 모델 및 입법화 방안』(2012)

*총무부 : 재정, 관리, 안전 및 보안, 복지, 행사 및 기타 타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시수를 산정하여 학교 내 각종 협의회들의 내실화와 제도화를 꾀해야 한다. 일선 학교 단위에서의 거버넌스 활성화, 그리고 학교의 마을학교화(예컨대 학교 시설의 개방과 각종 지역네트워크와의 연결)를 위해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지역시민사회 협의체를 정비하고 그 위상에 걸맞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런 일들은 모두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일들이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당장 해결 불가능한 일에 과도하게 매몰되지 않고 혁신교육의 학교현장 착근을 가능케 하는 실속 있는 일들을 찾아 펼쳐나가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면 ‘새로운 교육’으로의 교육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도 멀지만은 않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학교혁신을 통한 일반고 살리기

7월에 접어들어 전국의 진보교육감들이 임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연일 일반고 활성화 문제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런데 그 주된 논란의 축은 자사고의 존폐 여부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강행되어 교육의 다양화라는 지정 목적과는 다르게 입시 명문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여러 자사고들에 대한 지정 폐지는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자사고 등장 이전에도 ‘교실 붕괴’(예컨대 수업 시간에 소란을 피우거나 수면을 취하는 등)로 상징되는 일반 학교의 위기가 이미 존재하던 사안임을 감안할 때 지금의 논란이 한쪽으로 치우쳐 전개되고 있는 감이 없지 않다.

현재 일반고 위기의 원인은 ‘수업 분위기를 잡아 줄’ 상위권 학생들이 특목고나 자사고 등지로 빠져나가서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문계 입학 전형에도 낙방한 하위권 학생들이 다수 입학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체제는 기존 인문계고 시절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¹⁰⁾ 입시를 통해 이른바 ‘명문고’로 발돋움 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던 기존의 ‘인문계고’(현재도 많은 일반고들은 자신들을 ‘인문계고’라는 명칭으로 부른다)들은 그간 상위권 학생을 우대하는 동시에 하위권 학생들을 두발 규제나 강제 야자 등으로 압박하여 자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해 왔다.¹¹⁾ 이미 교실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위권 학생들의 입시

10) 권재원, 「자사고 문제와 일반고 살리기는 별개의 문제다」, 『미디어오늘』 2014.07.17 자 - 제2장 앞부분의 전반적 문제의식은 이 글에 빚진바 크다.

11) 토론자는 김상곤교육감 등장 이전에 근무한 한 일반고의 교감이 교무회의 시간에 공공연히 “3

‘실적’을 통해, 아울러 하위권 학생들의 조용한 ‘처리’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이를 가려왔던 측면이 농후했다. 그러다가 최근의 자사고 등장과 학생인권조례 실시를 계기로 그간 은폐되어 오던 ‘위기’ 상황을 더 이상은 숨길 수 없게 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일반고 자체를 혁신하는 것보다 자사고 폐지를 통해 ‘우수 자원’을 일반고로 보내는 것에 보다 많은 방점을 찍는 현재의 흐름은 자칫 고교 체제의 ‘구체제’를 복구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위험이 있다.¹²⁾ 또한 이것이 최근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발언처럼 일반고에 ‘가르치는 경쟁’을 도입하는 형태로 이어진다면, 입학사정관제를 겨냥한 맞춤형 입시 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던 기존의 자사고 따라잡기 운동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학교가 학원 따라하기를 펼치다 실패했던 전철을 밟을 확률이 높으며,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현재와 같은 입시경쟁 체제에서 이런 시도들은 각종 스펙용 전시행사(예컨대 각종 경시대회, 토론타회 등)와 특색 프로그램(예컨대 각종 일회성 이벤트식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생활기록부 분량 늘이기 경쟁으로 귀결되고, 결국 일상적 배움이 일어나는 ‘평소 수업의 부실화’라는 교육 파행으로, 염불(배움)보다는 잣밥(스펙)에 관심 갖는 비교육적 가치전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¹³⁾

따라서 일반고 살리기의 방향은 일반고의 혁신학교화에서 찾아야 한다. 이미 지나간 시대의 유물로 더 이상은 학생들의 현재의 삶은 물론 미래의 삶조차 보장해 주지 못하는 입시에 매몰되던 편향에서 벗어나, 민주 공화국 시민으로서의 기본 교양과 자존감,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학교 혁신의 방향에서 일반고 살리기를 고민해야 한다. 이는 곧 교육 패러다

월 한달 아이들을 뺏세게 잡아달라. 절대 야자 빼주지 말라. 그러면 못견디고 나간다. 한 학급만 없애자. 그러면 우리학교 저절로 명문학교 된다.”며 목표치까지 제시하는 것을 경험한 바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은 비단 그 학교만의 일은 아니었고 특별히 악랄한 측에 속한 것은 아니라는 평이 주류였다.

12) 실제로 이런 주장들은 일반고 교장들로부터 비롯된 바가 크다. - “교장단은 자사고의 선발권으로 인한 우수학생 쏠림 현상을 문제로 꼽고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을 제한하거나 폐지해야 일반고의 학생 구성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일반고가 중심 되는 공교육 꿈꿔”」, 『연합뉴스』 2014.07.16 자)

13) 토론자가 근무하는 분당 남부의 몇몇 고교들은 그런 스펙용 전시행사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열화 할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꿈 경시대회'부터 전통적 각종 교과 경시대회까지 수십개의 대회가 남발되기도 하고, 각종 스펙용 동아리, 봉사, 진로 관련 '특색프로그램'들은 내실 있기보다는 수십개씩 급조되어 폐이퍼꾸미기에 치중하는 편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잠재적 교육과정 상에서는 알맹이 없이 실적거양용 포장을 즐기는 영혼 없는 교육관료들의 행태를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다.

임의 전면적 혁신을 추상적 구호가 아닌 구체적 실천 속에서 구현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육 내용과 교수 방법을 혁신하고, 앞에서 언급한 교원업무 정상화, 학교 민주주의는 물론 학생 자치권의 실질적 부여, 전교사 담임제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기존 명목상의 평준화(일반고 살리기의 핵심 전제)를 실질화하기 위한 준비 역시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평준화에 대해 주장만 무성했다. 광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중식 지원비율’에 주목한 것 정도 외에는 엄연히 존재하는 학교 격차를 없애 진정한 의미의 평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를 가지고 어디에 얼마나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었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이기는 했지만 그나마 그 고민을 조금이라도 했던 것은 바로 교육부였다. 일제고사의 명분 중 하나는 바로 ‘부진아를 찾아내어 지원을 얼마나 할지 파악하겠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현행의 어설픈 평준화를 완전한 평준화로 재편할 필요도 있다. 현재의 평준화는 근거리 배정 원칙에 입각한 완전한 평준화가 아니라 정원의 50%까지는 학교 선택이라는 명목 하에 선지원을 받아 성적순으로 입학 사정을 할 수 있게 되어있던, 그래서 평준화 안에서도 서열화가 존재하는 절반만의 평준화인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좋은 쪽(즉 교육의 다양화)으로는 큰 득이 없으나 나쁜 쪽(평준화 안에서의 재서열화)으로는 훨씬 큰 폐해가 생기는 상황이다.¹⁴⁾ 그리고 이는 논리전개상 결국 자사고 설치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게 수렴되는 것임은 명백하다. 그러나 가끔 이러한 완전한 평준화가 ‘ 획일화 ’로 오해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학생이 역량을 키우며 지식을 구성해 간다는 혁신적 교육 패러다임이 아닌 잘 편집된 학습 내용(예컨대 기존의 교과서)을 잘 전수받는다는 전통적 교육 패러다임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기성품 지식’을 학생들이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각기 다른 ‘기성품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는 지적 편식을 막아주는 보편 교육과정 속에서도 자기주도형 학습(예컨대 프로젝트학습)을 통해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는 것들이다. 오히려 과목과 교육과정의 ‘선택권’을 강조했던 시도들은 실제 현실에서 입시에

14) 우수학생이 모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일례로 경기도의 한 혁신고는 혁신학교나 ‘퇴학이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를 그만 둔 복학생들과 운동부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대거 몰려들며 학교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했다. 3년 연속으로 교사들 가운데 암환자가 발생한 이 학교의 ‘일반’ 학생들은 인권이라면 이를 가는 보수적 가치관을 체득하고 있다.

유리한 방향으로의 ‘지식 쇼핑’과 그에 따른 ‘지적 편식’으로 귀결되었던 점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¹⁵⁾

글의 첫머리에서 언급하였듯, 이제 혁신교육은 주류의 위치에 접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소수자 시절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채택하곤 하던 ‘전선 긋기’, 혹은 ‘파열구 내기’의 양상에서 벗어나, 주류의 여유를 가지고 자사고 등을 혁신교육의 패러다임 안으로 에둘러 포섭·개조 시켜가는 전략이 필요할 때이다. 요컨대 굳이 자사고와 대립각을 펼치기 보다는 일반고 혁신학교화의 물결 속에 이를 잠겨버리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 필요한 자사고에 대한 조치는 교육부 평가지표(법정 법인전입금 납입, 입시위주 교육 및 선행교육 실시, 입시전형 관련 비리)에 따라 충실히 평가하여 미달하는 자사고들에 대해 조용히 재지정 취소 의견을 내는 것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¹⁶⁾ 끝.

15) 신동하, 「‘쇼핑식’ 교과목 선택, 신화 벗어나야 한다」, 『경향신문』 2012.11.25 자.

16) 경기도교육청은 안산 동산고에 대해 평가결과 ‘미흡’을 근거로 교육부에 자사고 재지정 취소 의견을 냈다. - 「경기교육청, 전국 첫 자사고 사실상 재지정 취소 평가」, 『연합뉴스』 2014.07.21. 자.

혁신학교와 공교육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토론

박이선(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1. 혁신학교와 학부모

○ 2009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내건 ‘혁신학교’는 새로운 학교교육 모델로 등장했다. 그동안 혁신학교 수는 늘었고, 지역마다 특색을 반영하는 지역별 혁신학교로 진화하고 있다.

○ 학부모들은 아이가 다니는 학교와 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다. 혁신학교에서 시도된 것중에는 학부모들과 학교와의 소통방식을 새롭게 하려는 노력도 있었고, 이는 학교와 학부모의 관계맺기의 새로운 시도로 이해되기도 했다.

○ 학교와 학부모와의 관계는 열악한 교육재정을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고, 이로인해 학교문화를 왜곡시키기도 했다. 후원회, 사친회, 기성회, 육성회로 이름붙여진 학부모조직이 그것이다. 1996년에 학교운영위원회가 등장하면서 학교운영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만들어져 학부모와 학교와의 관계가 그 이전과 달라진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으로서의 학부모대표는 학부모 조직의 대표가 아니었다. 학부모조직은 법적 지위가 없는 자생단체로 존재하고 학교운영위원들과 학부모의 대표성을 놓고 갈등에 놓이는 일도 다반사였다. 결국 학교운영위원 학부모위원이 법적 대표로 학부모들의 의견이 전달되는 통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의 ‘전국 학부모회 현황’(2009)에 따르면, 약 63%의 학교에서 학부모 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의 공동체적 요소와 민주적 요소를 포괄하는 이상적인 학교 모델을

‘민주적 공동체 학교’로 명명할 수 있다. 민주적 공동체 학교는 학생을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와 결합된 민주적 시민으로 양성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민주적 공동체로서의 학교는 다음의 같은 민주주의 원리를 설정해야 한다. 첫째, ‘참여민주주의’를 중요한 학교의 운영 원리를 설정해야 한다.<…중략…> 둘째, 민주적 공동체 학교는 ‘심의민주주의’를 학교의 운영원리로 삼아야 한다. 이는 하향적 명령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신속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된 문제를 집단적으로 숙고하는 민주적 삶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과거의 권위주의적 지배구조를 민주적·수평적 협의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학교 구성원들의 상향식 참여를 통한 학교 변화에 대한 동의와 협의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행정을 처리하는 방안은 ‘심의’와 ‘합의’를 통해 시민사회의 근간을 튼튼하게 하는 중요한 토대 형성이 될 것이다.”(심성보, 민주화이후의 공동체 교육, 2008)

○ 혁신학교와 학부모의 소통방식은 민주적 학교공동체의 원리에 맞게 운영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2. 학부모의 학교참여 확대 필요성

○ 학부모들의 학교참여 확대는 필요한 것인가, 필요없는 것인가는 여전히 학부모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 대체적으로 학교 교육의 보조자나 자원봉사자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 자식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일부 학부모들의 행태에 대한 불신 때문이기도 하다.

○ 2011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영역은 학습지도 활동 14.4%, 학교교육모니터링 13.9%, 학부모교육 강의 수강 10.7%, 교육지원활동 10%, 학교안전도우미 활동 9.4% 등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부모교육 강의 및 수강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안전도우미 활동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교사와 학부모의 정기적인 대화 시간 마련 25.3%, 자율적 민주적 학부모회 운영 20.5%,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강화 19.6%,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학부모와의 대화 공간 제공 11.6%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10.9%, 정기적 수

업참관 기회제공 및 확대6.2%, 학교내 학부모모임 공간 설치 5.9% 순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에서는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강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중소도시에서는 교사와 학부모와의 정기적인 대화 시간 마련이, 읍면지역에서는 자율적 민주적 학부모회 운영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지역 규모별 의견이 차이가 있었다. (김동선, 학부모회 활성화방안, 2013 재인용)

○ 2011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서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자녀의 인성발달, 학업성취향상, 자녀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인성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89.2%,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86.1%, 자녀의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79.3%로 조사되었다.

○ 또한 학부모의 학교참여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① 개인적 차원으로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48.4%, 담임교사와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20.6%, 학교에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4.3%,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11.9%, 부모가 활동하는 것을 아이가 싫어해서 4.5%, 학교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② 학교 차원으로는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20.6%, ‘교사와의 공식적인 대화 기회가 부족’ 15.9%, ‘모임의 개최시간이 낮 시간대여서’ 14.1%, ‘시설이나 공간이 부족해서’ 11.4%, ‘교육/학교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 9.6%, ‘학교에서 재정적 지원을 요구’ 9.6%, ‘자료/연수/홍보가 부족해서’ 8.2%, ‘학교장이나 교사가 꺼려해서’ 6.1%, ‘학부모회의 운영이 비민주적임’ 3.0% 등으로 나타났다. ③ 사회 및 제도적 차원의 요인으로는 ‘국가 및 시도 교육청 차원의 지원 부족’ 33.9%, ‘학부모 교육 부족’ 29.1%, ‘학부모 참여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24.8%, ‘필요한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동선, 학부모회 활성화방안, 2013 재인용)

○ 해외의 연구에서도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Epstein(2009)에 따르면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업동기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결과를 미친다고 한다. 부모의 직업,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에 상관없이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학생의 사회적 기술과 학교에서의 적응, 등록률, 졸업률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Walker & Hoover-Dempsey(2008)는 학부모 학교 참여와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대한 매커니즘을 제시하였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로 인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격려와 숙제 지원, 수업에 대한 관심 등으로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수업에 대한 강한 내적 동기가 높아지고 학업에 있어 자기조절전략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강소연, '학부모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2010년, 3~11쪽에서 재인용)

○ Darkenwald & Sharan(1986)은 학부모 참여의 장애 요인을 4가지로 보았다. 첫째, 상황적(situational) 요인이다. 직장 근무 시간, 교통 상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사회·심리적(psychological) 요인이다. 학부모는 자신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자녀의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 참여를 재정적 지원과 연결시켜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셋째, 정보적(informational) 요인이다. 학교가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알지 못할 때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제한될 수 있다. 넷째, 제도적(institutional) 요인이다. 학교의 장소와 시설이 부적합하거나 일방적인 회의 진행이나, 비민주적인 절차 등의 제도적인 요인으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강소연, 앞의 논문 15-17쪽 재인용)

○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동은 확대되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학부모회를 법적기구로 만드는 것에 부정적이고,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학부모회의 활동이 과거 육성회 등과 같은 활동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3. 경기도교육청 학부모회 법제화의 의미

○ 2013년 1월, 경기도 교육청에서 마련한 '경기도 학교학부모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학부모회를 법적기구로 만든 것이다.

○ 이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학부모들의 의견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학교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학급 학부모회- 학년학부모회-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로 의견수렴을 거쳐 민주적 학교공동체의 원리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참여협육의 이론적 근거와 실천 방안,이광호,12-14쪽)

○ 물론 학부모회가 법적기구가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로 발걸음을 하고 학교참여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학교공동체의 일원으로 스스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학부모회가 조례로 제정되고 각 학교 학부모회는 회의를 통해 활동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면서 다양한 활동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아직 학부모회담당 교사에 의존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하는 것과 학부모들의 자발성이 매우 낮은 것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긴 하다.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므로 정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혁신학교에서 주목했던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방식이 학부모회 조례제정으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학부모들의 학교참여활동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교육 문화를 바꾸는 것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토론문 5

박현숙(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표)

혁신학교와

공교육패러다임 변화 토론회

- 일 시 : 2014년 7월 23일(수) 15:00~18:00
- 장 소 : 서울시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강당
- 주 최 : 전교조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형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주 관 : 전교조